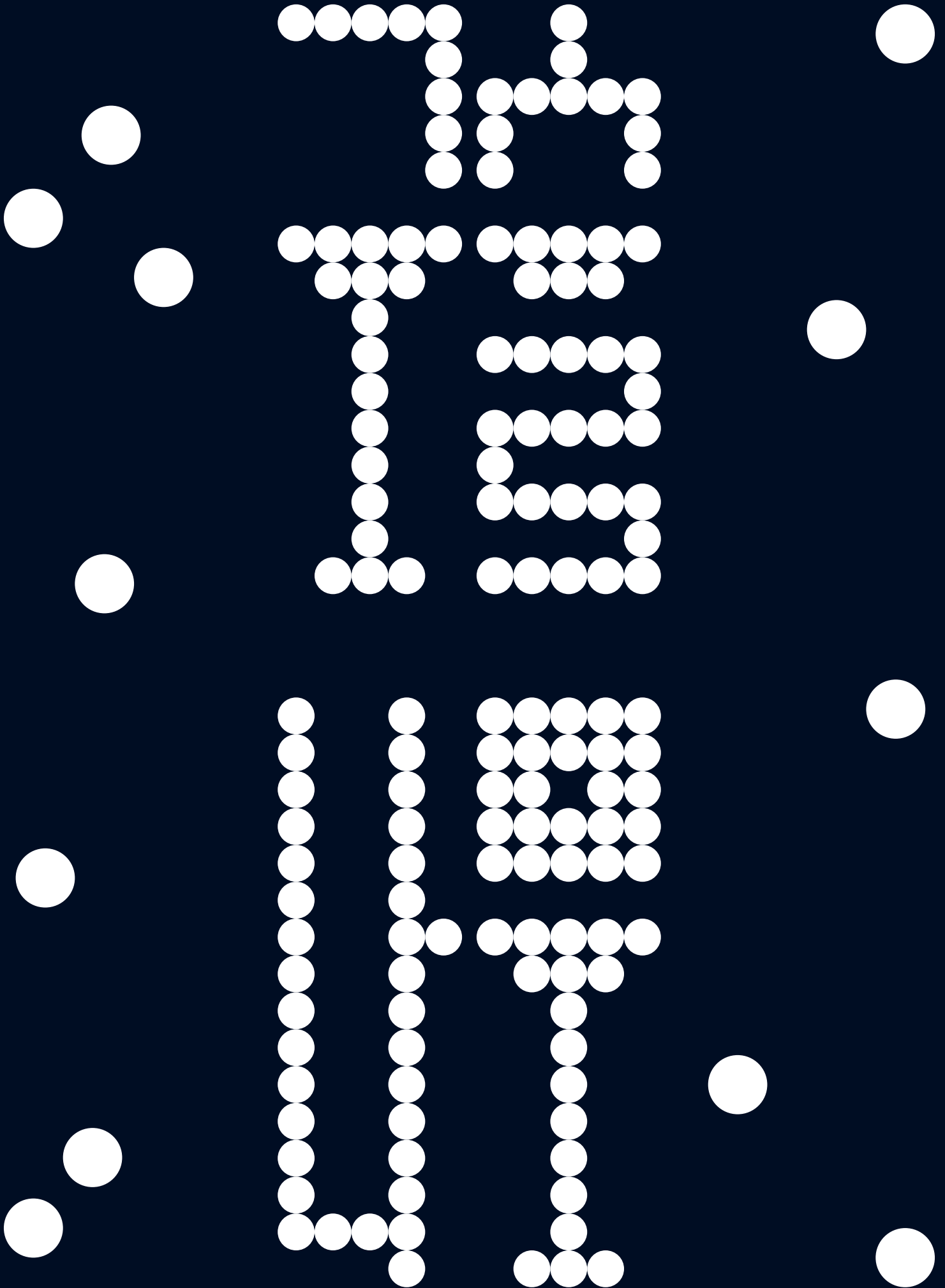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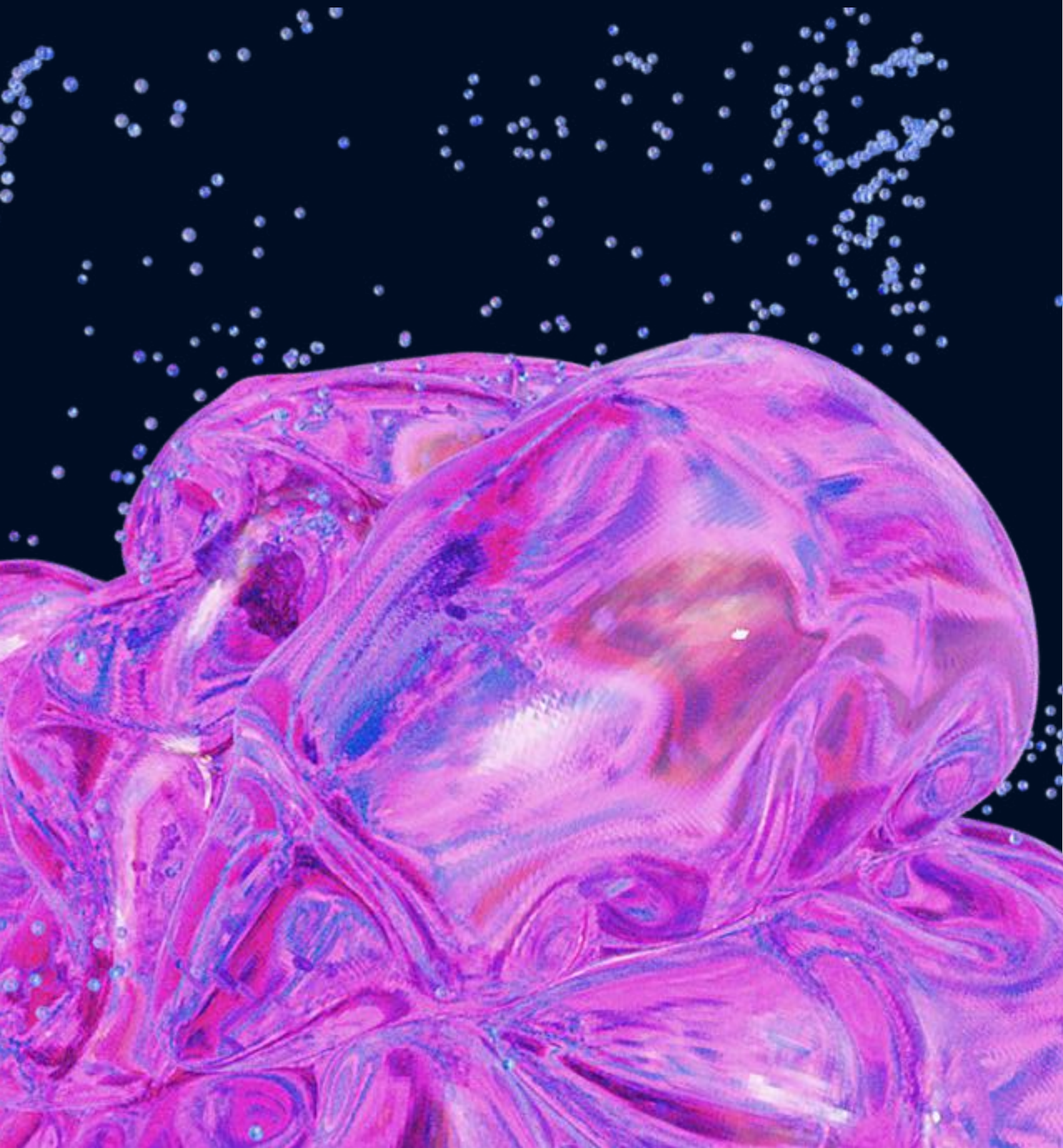
THE

WORLD

OF



#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 목차

### 목차

- 06 인사말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 07 축사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 08 인사말  
노재순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 10 전시서문
- 12 평론  
윤진섭 미술평론가
- 18 단원미술대상  
김준기
- 30 선정작가  
김민호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염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호경  
정현정  
현덕식
- 132 작가약력
- 146 심사결과 및 위원명단
- 152 발행정보



## 인사말

이민근

안산시장 ·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여는 안산시장 이민근입니다.

올해로 스물여섯 번째를 맞은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이 우리 안산의 가을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산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데 힘써주시는 안산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단원미술제 심사를 맡아주신 노재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 김홍도의 고장, 안산시는 예로부터 예술과 사람, 그리고 일상의 아름다움이 공존해 온 도시입니다. 특히 단원미술제는 그 전통을 계승하며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창의적 감성을 담아내는 미술인의 축제이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끄는 귀한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은 ‘구슬나무’라는 주제로, 현실과 이상,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예술적 사유를 담은 11명의 작가들이 함께합니다. 각기 다른 시선과 감정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예술가가 자유롭게 꿈꾸고 시민이 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단원 김홍도의 정신을 되새기고, 안산의 문화예술이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작가 여러분과 뜻을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입니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가을,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구슬나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창의와 열정을 담아 작품을 선보여주신 열한 분의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많은 관람객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하며, 전시회를 더욱 빛내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단원미술제와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안산문화재단 김태훈 대표이사님과 김홍도미술관 하진용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단원미술제는 시대를 초월한 그의 예술적 유산을 오늘날 우리 곁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전시 역시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현대적 감각과 이야기로 우리 일상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섬세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마음껏 느끼시고,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열한 분의 작가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산을 넘어 한국 미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시길 기대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노재순

제26회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청량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어느덧 26번째 단원미술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을 직시하며, 창의적 발상과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지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모전입니다. 그간 단원미술제에서 배출된 수많은 작가들 모두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원미술제는 치열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낸 작가들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개최되는 선정작가전에서는 현재 한국 화단에서 독특한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김민호, 김준기,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염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현덕식 작가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미술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선정된 작가들이 더욱 발전하도록 해야하는 단원미술제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단원미술제를 준비하고 지원해 주신 이민근 안산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여해 주신 전국의 많은 작가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단원미술제가 앞으로도 전국의 젊은 작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 《구슬나무》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된 미술 공모전이다. 2015년부터는 미술부분을 '작품공모'에서 '작가공모'로 전환하여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후속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는 총 439인의 작가가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미술 전문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김민호, 김준기,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염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현덕식 11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다양한 주제와 매체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구슬나무>라는 제목 아래, 11인의 작가 개개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구슬나무>는 난설헌 허초희(1563~1589)의 시 「유선사遊仙詞」에 등장하는 소재로, 초월적인 선계의 모습과 신비로운 궁전을 짓는 재료로 묘사된 바 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을 그린 유선시가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이러한 창의적 상상력은 시각예술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대 작가적 사고와도 맞닿아 있다.

작가에 세계관은 하나의 소우주와 같고,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신비롭고 영롱한 구슬처럼 비친다. 이번 전시 제목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진 작가들을 한명 한명 주목하며, 그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위해 붙여졌다.

참여 작가들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부터 우리라는 사회 공동체, 감각적 경험과 사유 등에 대한 탐구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작품에 담아낸다. 그중 올해는 전통 회화 기법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작업이 두드러져, 단원미술제 가치 확장에 의미를 더하며, 회화가 지닌 진정성과 새로운 면모를 더욱 보여준다.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에는 최종 단원미술대상이 전시기간 중 선정됐다.

# 11개, 개성의 각축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I.

경기도 안산시에는 조선시대 중엽 단원 김홍도가 유년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표암 강세황에게서 그림을 배우며 성장한 고장이다. 1991년, 문화부는 이를 기리기 위해 안산을 '단원의 도시'로 명명한 바 있다. 안산시는 이를 계기로 안산을 단원의 도시로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해 1999년부터 단원미술제를 개최해 왔다.

단원 김홍도의 고장 안산시가 주최하는 단원미술제가 어느덧 26회째를 맞이하였다. 단원 김홍도는 조선시대 영조 때 태어난 한국의 대표적인 풍속화가이니, 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단원미술제의 창설 배경에는 한국화의 중흥이라는 안산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기대와 여망이 깃들여 있다. 물론 현재 행해지는 단원미술제는 참가 자격을 굳이 한국화로 제한하지 않고 미술의 전 장르와 매체로 개방하고 있으나, 이번 본선에 올라온 11명의 작가들의 전공 중 한국화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참고삼아 작년의 행사를 살펴보면 최종심에 오른 강승혜, 김범준, 김정옥, 노은영, 성필하, 신예진, 안종우, 주형준, 최은정, 최혜연, 한소희 등 11명의 작가 중 한국화 전공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암암리에 단원 김홍도가 지닌 미술사적 위상이 영향을 미치게 아닐까? 한국화의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은 곧 한국화 분야의 우수인력이 많이 몰렸다는 사실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단원미술제의 응모 현황을 보면, 총 439명의 응모자 중 평면(회화) 245명, 평면(한국화) 78명, 평면(사진, 판화) 28명, 입체 38명, 복합이 50명 등이다. 이 중에서 1차 심사를 통해 22명이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를 거쳐 다시 11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II.

보다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5년도에 단원미술제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존에 해오던 작품 공모를 작가 공모로 전환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작품 공모가 지닌 폐단은 작가의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과 1-2점의 작품만으로 작품세계를 판단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작가 공모는 전체 응모자 중에서 2차 관문을 통과한 11명 작가의 작품 다수를 전시장에 직접 진열하거나 설치, 최종심을 행하는 장점을 지닌다. 아마도 단원미술제가 국내에 존재하는 많은 미술공모전 중에서 유독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런 제도적 강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 공모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전시 중에 최종심인 3차 심사를 하는 것이다. 3심에 오른 11명의 선정 작가들은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개방된 상태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 건의하자면 관객이 뽑은 작가상, 즉 인기상을 차기에 신설하면 어떨까 한다. 그렇게 하면 관객들은 불청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객참여의 기회를 맞음과 동시에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 III.

단원미술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창설된 미술제이다.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단원미술제가 스물 여섯 해를 맞는 동안 국내의 어엿한 중견 미술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기색이 완연하다. 점차 그 성가를 높이면서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중이다.

이참에 단원미술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한국화의 침체 내지는 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미술계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국화의 중흥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8.15 해방 이후 한국현대미술사에서 한국화(동양화)가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는 대략 10-20여 년전부터가 아닌가 한다. 대학의 한국화과가 폐과가 되는 조짐이 일면서 60-70년대의 미술계를 점유했던 한국화 진흥의 분위기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60-70년대에 화랑가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명한 한국화 원로작가들의 전시가 2천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변모된 문화환경에서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한국화의 퇴조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60년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행 이후 형성된 아파트 건설 붐이 가져온 변모된 주거환경은 한국화의 쇠퇴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80년대의 수목화 운동, 2천년대 초반의 ‘동풍(東風)’ 등은 한국화 분야에서 나타난 신선한 혁신적 바람이었으나, 지속적인 집단적 실험 내지는 전위미술 운동으로 계승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2017년, 한국화 분야에서 일어난 ‘한국화진흥회’의 창립과 ‘한국화의 날’ 지정 등등 잇다른 자구책은,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효를 기대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구호보다는 형식과 내용의 혁신적인 내부의 의식변화가 수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비구름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가장 ‘핫’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에 관한 소식은 향후 한국화의 진흥에 좋은 징조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호랑이와 까치, 민화와 귀신을 비롯하여 김밥과 남산, 갓과 두루마기 등 한국을 상징하는 풍물과 문화유산들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긴 텀으로 보면 동양, 아니 한국의 문화가 전지구촌적인 규모로 세계 곳곳에 스며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K-Pop’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최근에 김홍도미술관에서 열린 [우미미 연비비(雨微微 煙蕩蕩)]전은 한국화의 새바람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시였다. 단원미술제의 주체로서 김홍도미술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조선시대 풍속화의 새바람을 일으킨 김홍도의 실험정신을 계승한 신풍(新風)이 안산에서 부는 것이리라.

### IV.

공모전의 생명은 공정한 심사에 있다. 비평과 창작 분야의 전문가들인 5인의 심사위원단은 이번 행사의 심사에 임하여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스스로 개별접촉을 삼가는 가운데 전시장을 돌며 채점에 임했으며,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겼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본선 심사에 오른 김민호, 김준기,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염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현덕식 등 11인의 작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개성이 강하고 실력이 출중했다.

올해 단원미술제의 특징은 구상미술의 강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작년의 경우와 비슷한데, 구상 중에도 초현실적이며 사물과 사건의 국면에 대한 정치(精緻)한 묘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구슬나무>인데 주최측의 설명에 의하면, “난설헌 허초희(1563-1589)의 시 <유선사(遊仙詞)>에 등장하는 소재로, 초월적인 선계의 모습과 신비로운 궁전을 짓는 재료로 묘사된 바 있다” 한다. 구슬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국은 결국 다양한 내면세계의 표출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번 11명의 전시 내용이 과연 그러하다. 거울과 빛을 매개로 사물과 나, 타자,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주제를 평면과 입체로 표현한 김준기(대상 수상), 채집된 사진 이미지를 이용, 축적의 방법을 통해 시공을 한 화면에 표출한 김민호, 대상의 실재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대상을 촬영, 이미지 변형을 통해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드는 김형욱, 여행을 통해 한국의 밥상을 소재로 한국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실험을 하는 김형진, 잃어버린 시원을 향해 숲을 소재로 한 다양한 회화적 실험을 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이 숨 쉬는 원시림의 세계를 지향하는 선민정, 콜라주를 주된 조형기법으로 삼아 꿈의 세계를 초현실적이며 파편화된 몽환적 분위기로 표출하는 염지희,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적 환치를 일련의 띠를 통해 구현하는 가운데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주목하는 이윤빈, 마음의 매개체로서의 종이비행기를 광대한 풍경 속에 투사함으로써 유년기의 순수한 상상력을 표출하는데 주력하는 이윤정, 장치 위에 동물, 식물, 곤충 등등 삼라만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풍경을 정치한 기법으로 그리는 전효경과 흑백의 거대한 화면,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기하학적 추상화를 출품한 정현정의 변형 캔버스, 장치 위에 진한 먹으로 검게 그린 부분을 붓으로 닦아나가는 작업을 통해 얼음 덩어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현덕식 등등 각자 독자적인 세계를 뽐낸 멋진 전시였다.

#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2025. 9. 30 - 11. 9

김민호 KIM Minho  
김준기 KIM Junki  
김현욱\* KIM Hyunwook  
김홍진 KIM Hongjin  
선민호 SUN Minho  
김지현 KIM Jiyeon  
이영희 LEE Yeonhee  
김지현 KIM Jiyeon  
김홍진 KIM Hongjin

The 26th Danwon Art Festival  
Selected Artist Exhibition

김홍도미술관 1관

김홍도미술관 1관

김홍도미술관 1관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2025. 9. 30 - 11. 9

김홍도미술관 1관

김홍도미술관

전시공간

2025. 12. 1 - 2026. 3. 31

김홍도미술관

전시공간

지원사업

2025. 12. 1 - 2026.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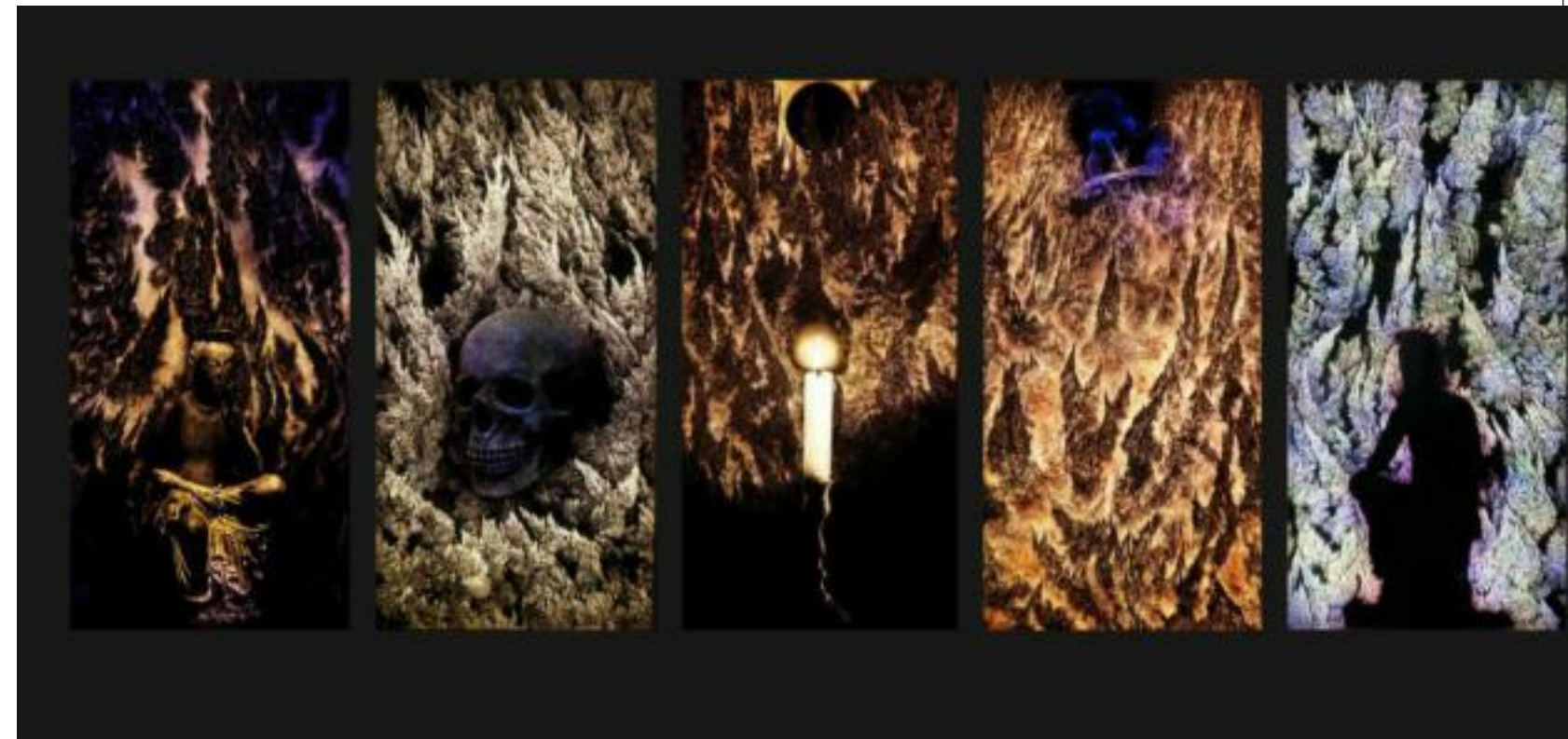
제26회 단원미술제  
단원미술대상

# 단원미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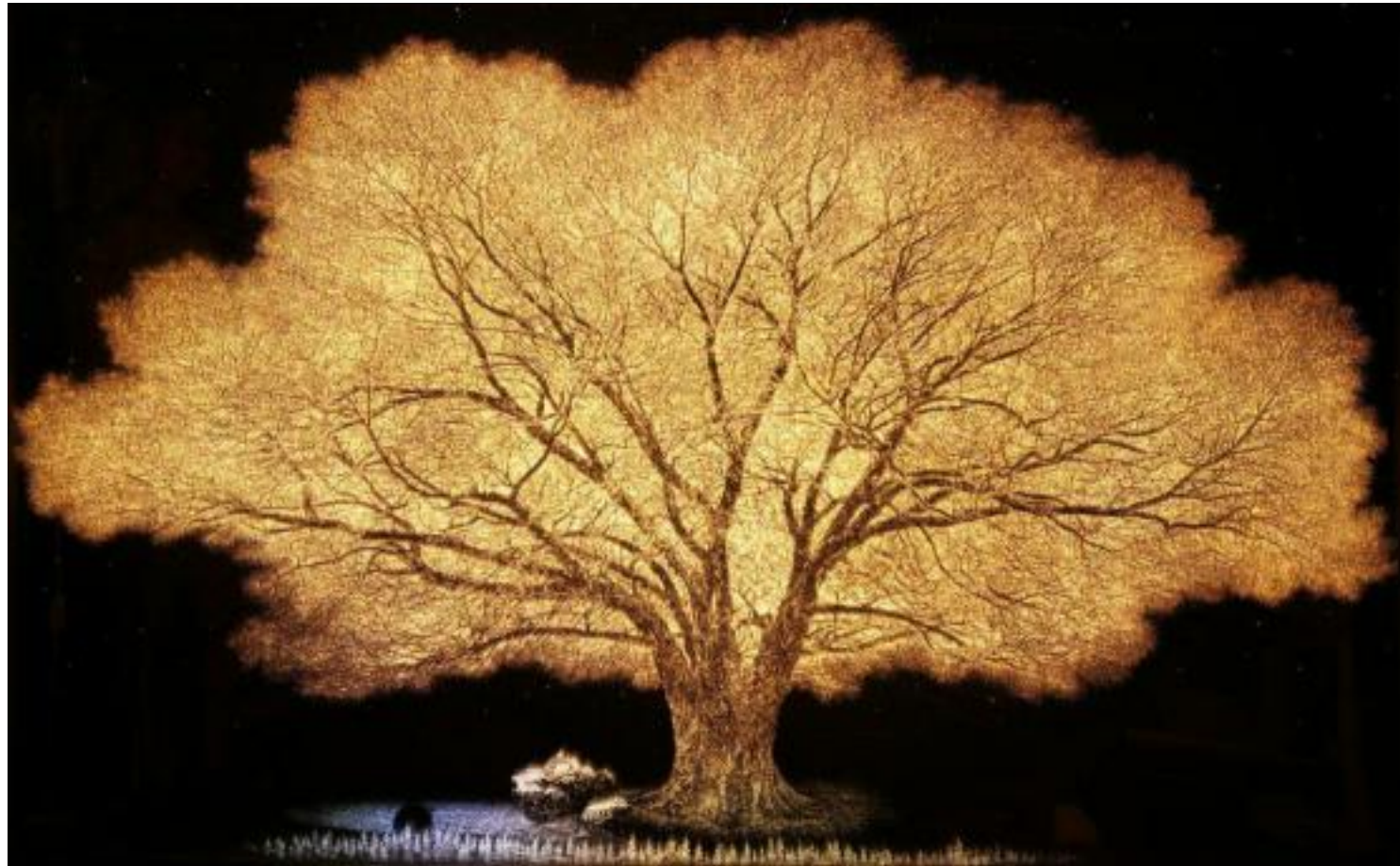


## 김준기 KIM Jun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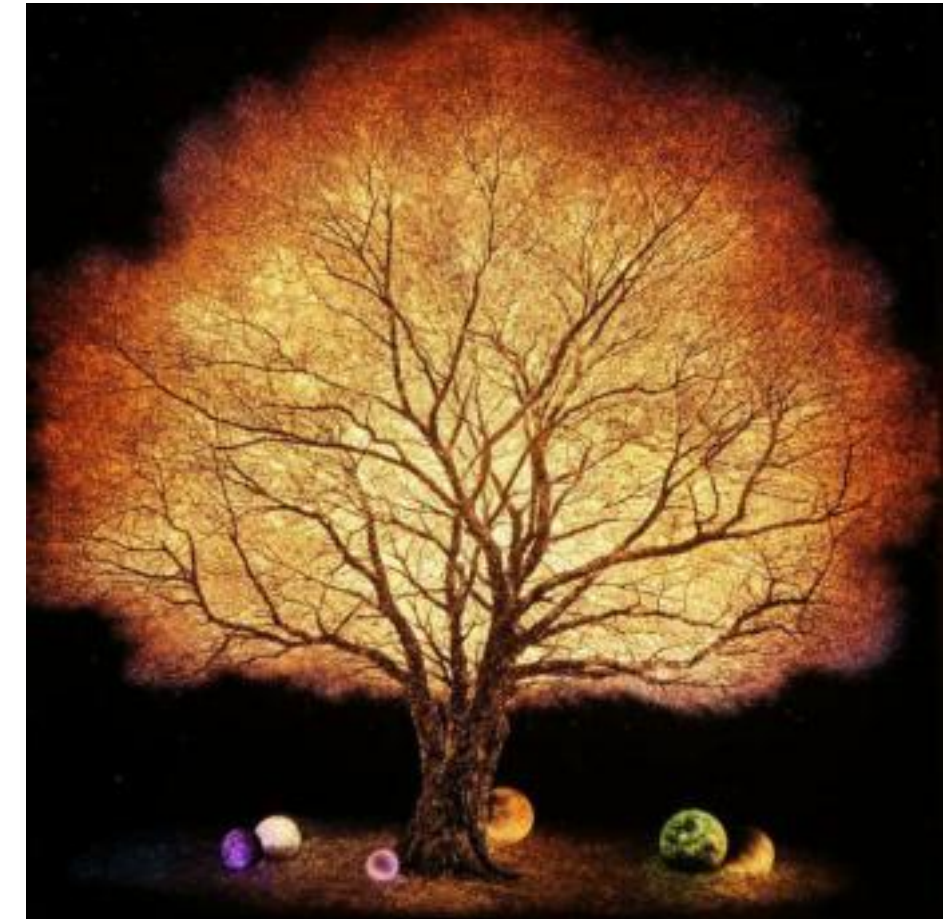
김준기의 작업은 거울과 빛이라는 물성을 매개로 나와 타자, 삶과 죽음, 허와 실 등 존재의 경계를 탐구하는 시도이다. 작업에 등장하는 향나무, 반가사유상, 해골, 촛불, 해와 달, 나비 등은 각기 고유한 상징에서 출발하지만 변화하는 LED 빛의 온도와 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모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 이는 동양 철학의 '관계 속 존재'라는 사유를 바탕으로 하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환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관람객은 작품에서 반영된 자신의 형상, 거울과 빛 속에서 중첩되는 자아와 타자를 통해 존재의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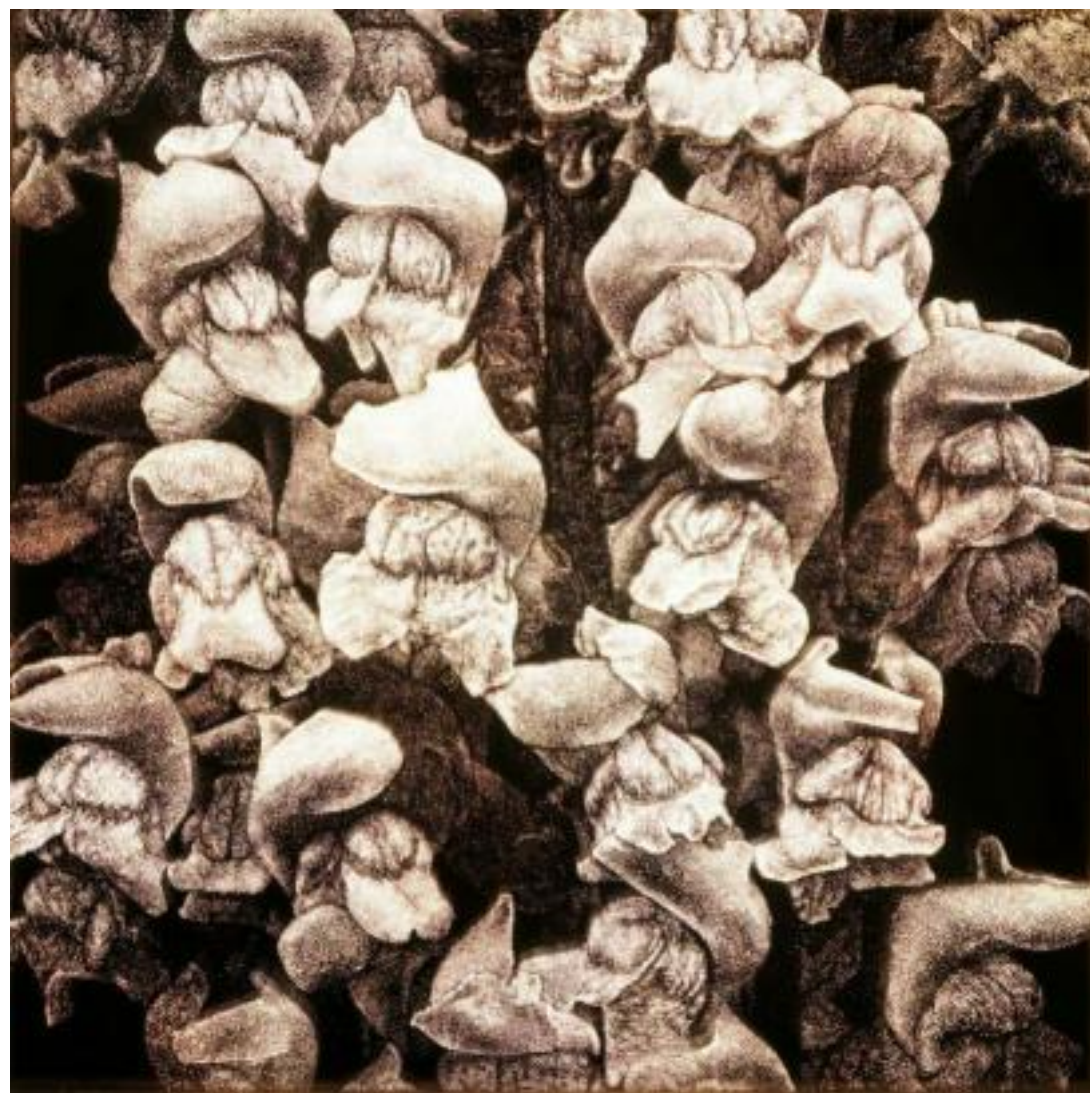
타자의 거울 2506\_2507\_2508\_2509\_2502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  
각 180x90cm(5pieces)\_2025



타자의 거울 2505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90x145cm\_2025



타자의 거울 2503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120x120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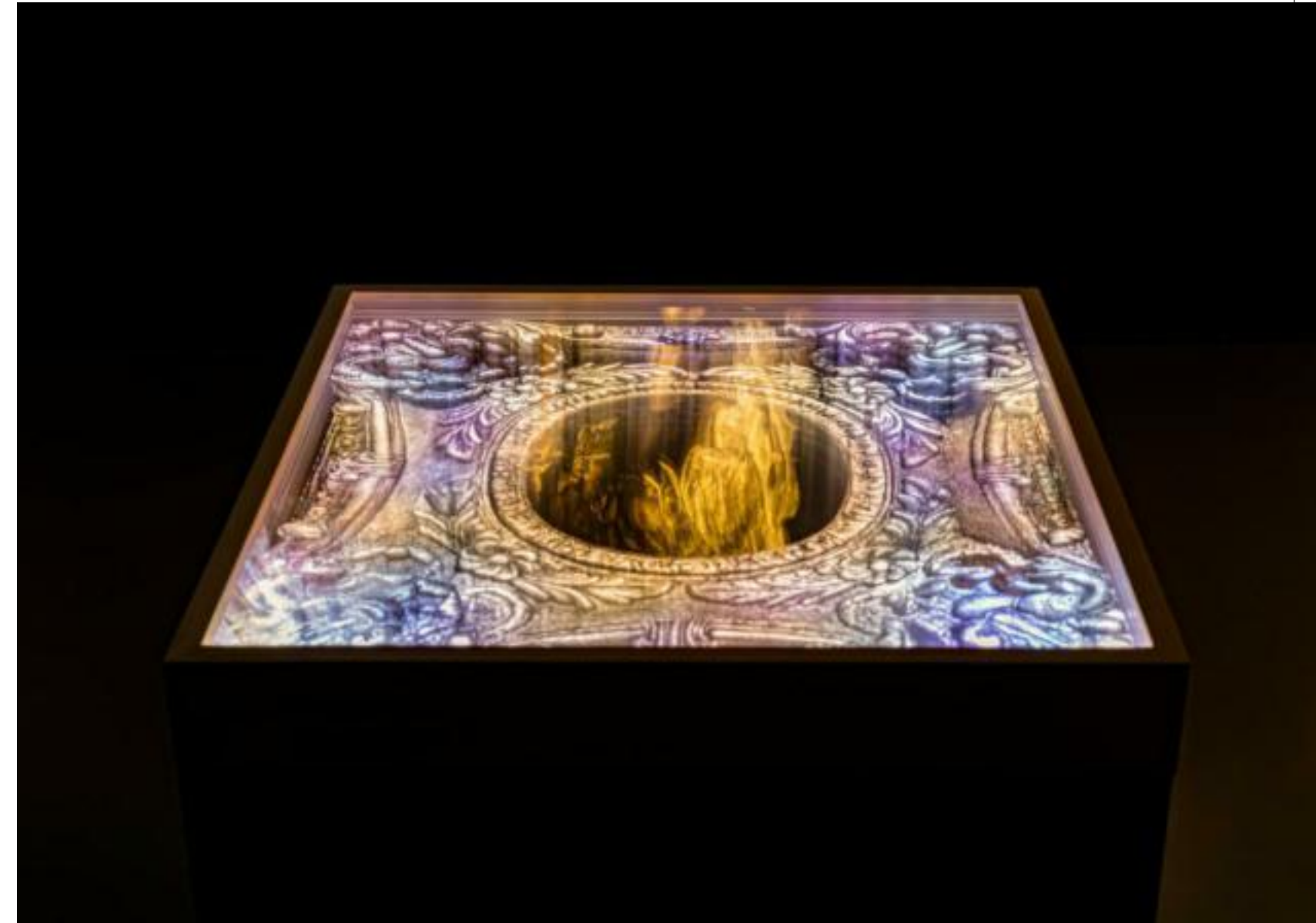
타자의 거울 2511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60x60cm\_2025



타자의 거울 2512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60x60cm\_2025



타자의 거울 2510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60x60cm\_2025



타자의 거울 2513  
아크릴 거울, 전동 드릴 스크래치, LED 모듈, RGB 컨트롤, SMPS\_60x60cm\_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2  
선정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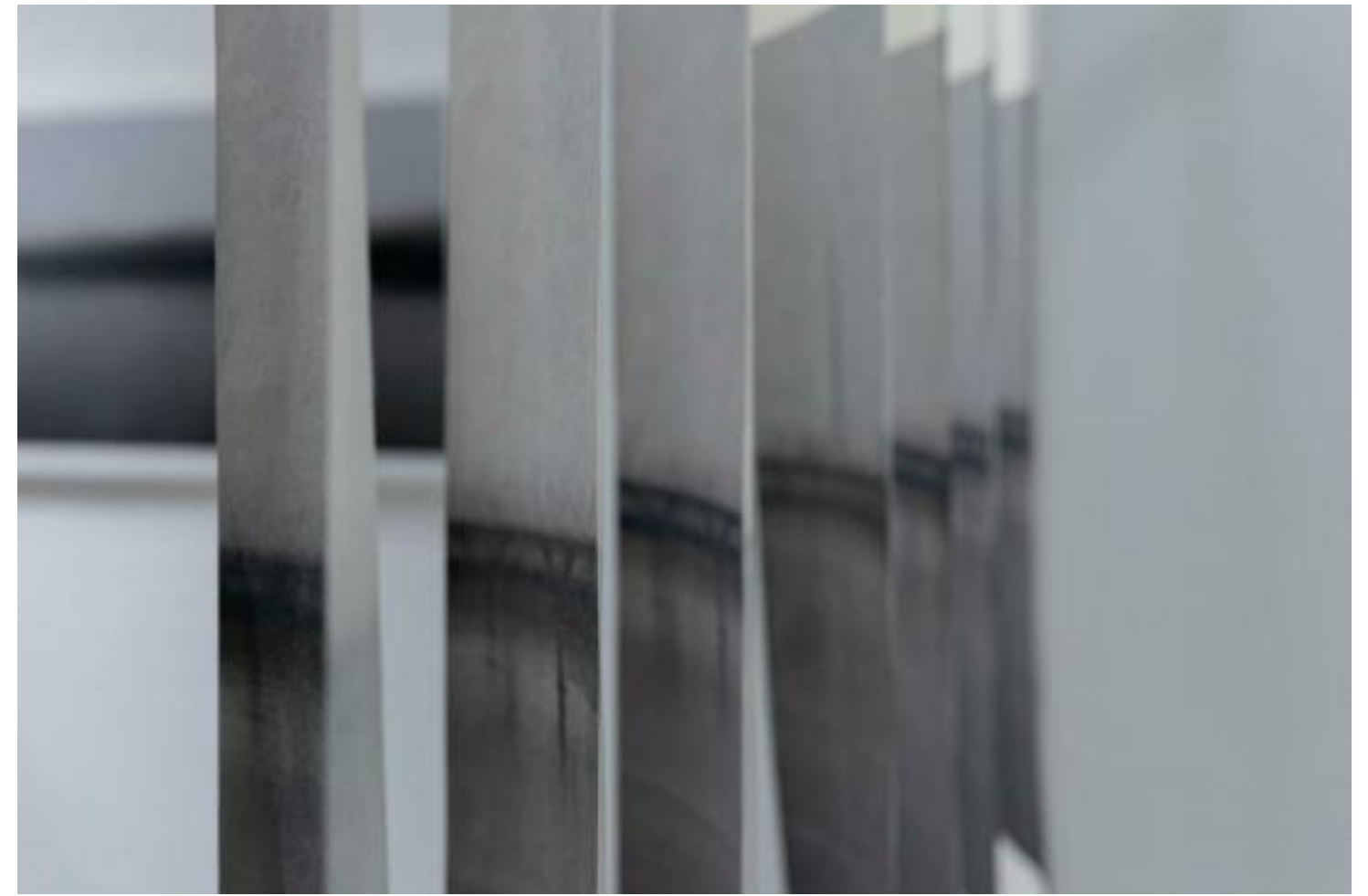
# 김민호

## KIM Mi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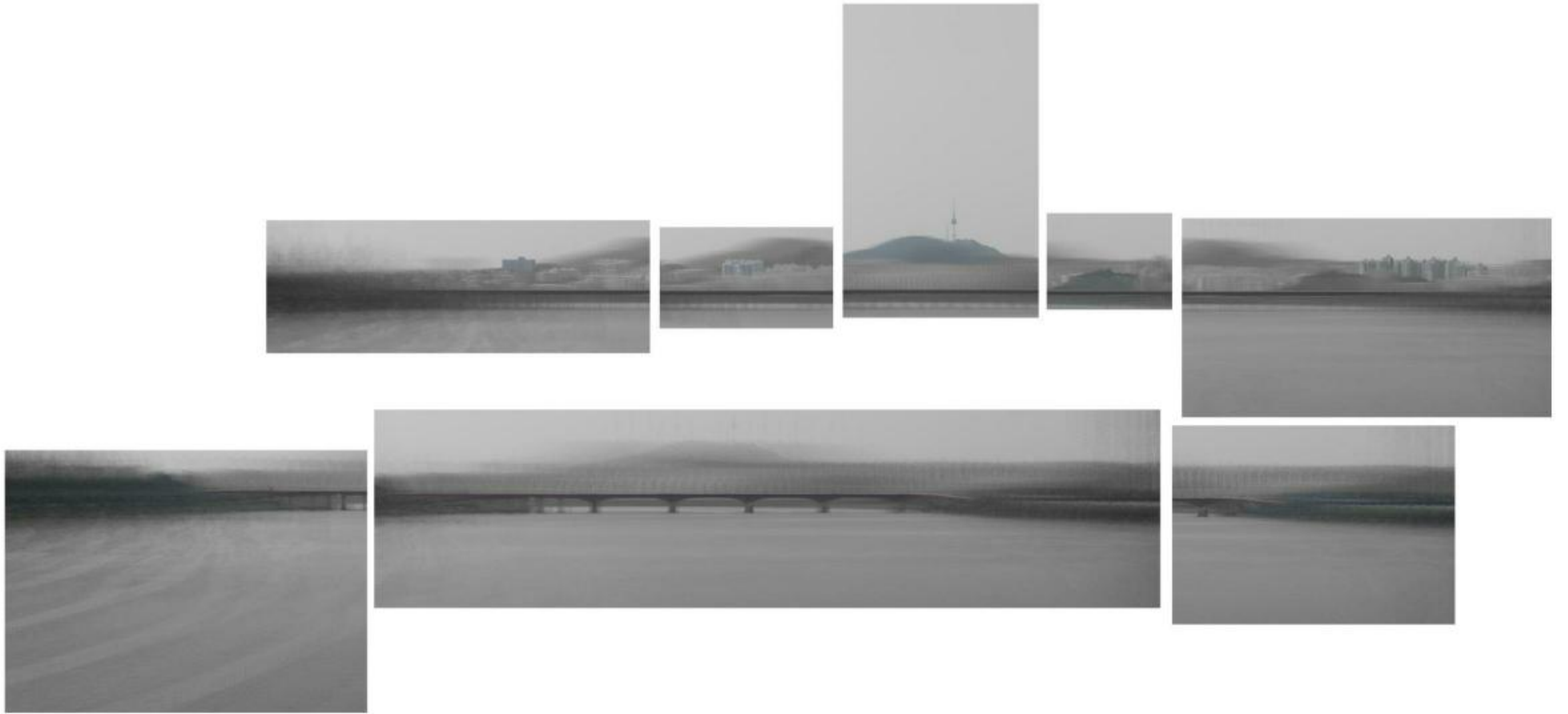


김민호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각자의 감각으로 인지한 풍경을 공감각적으로 재현한다. 작가는 찰나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일반적인 사진의 재현 방법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지를 축적하는 방식을 활용해 연속된 시간과 이어지는 공간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 결과 관찰 대상의 이동을 통한 변화를 포착한 횡적 이미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종적 이미지가 겹친다. 결국 작가의 작업은 수많은 시각적 조각들을 한 장의 이미지로 쌓아 완성되어, 작업 속 대상은 시·공간을 아우르는 함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Flow the city\_서강대교  
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_60x157cm\_2025



Flow the city\_청담대교\_M  
한지에 피그먼트프린트\_135x342cm(가변설치)\_2025



Flow the city\_성수대교\_scene  
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_42x60, 48x150, 60x88, 42x78, 25x43, 24x30, 75x48,  
32x90cm (8pieces)\_2025



Flow the city\_서강대교\_Distribution  
종이에 cmyk 인쇄\_30x50cm(3000장/가변설치)\_2025



Flow the city\_한강철교  
한지에 피그먼트프린트\_63x210m\_2025

김민호 KIM Minho

김민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살았다. 그는 양양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사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의 사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의 사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다.



양양



양양



김형욱의 작업은 ‘눈 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재(實在)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단단한 바위산이 출렁이는 듯한 착시현상을 경험한 작가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환영인지 의심하며, 결국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작가는 직접 촬영한 풍경 이미지를 수집하고 단위 면적으로 조각낸 뒤 재구성해 실재하는 풍경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그려낸다. 비어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에 빈 사각형을 남기는 행위는 해당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며, 그곳엔 한지의 따스함만 남게 된다.

# 김형욱 KIM Hy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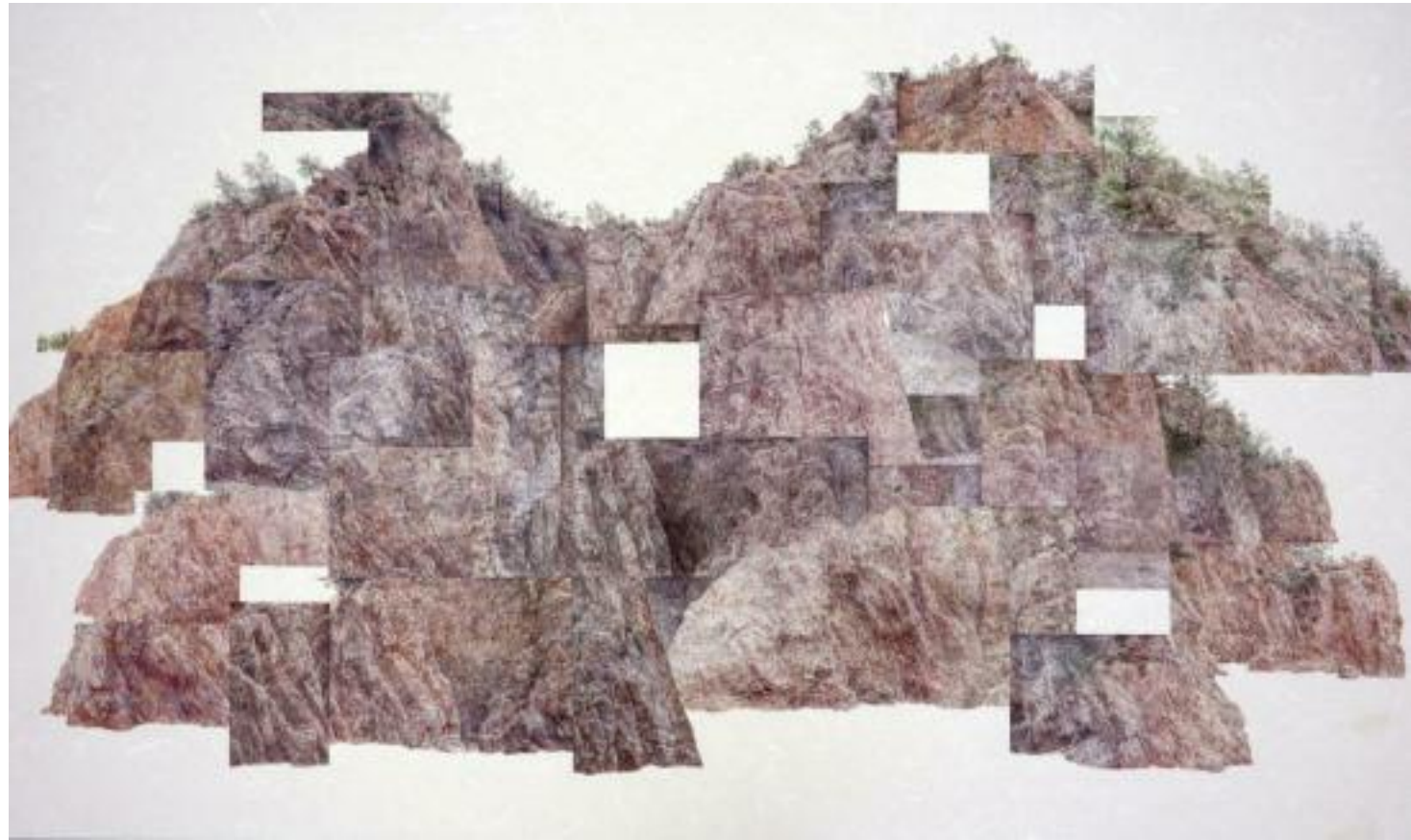
대강면2  
천 한지(합성섬유)에 먹, 아크릴릭, 호분\_97x162.2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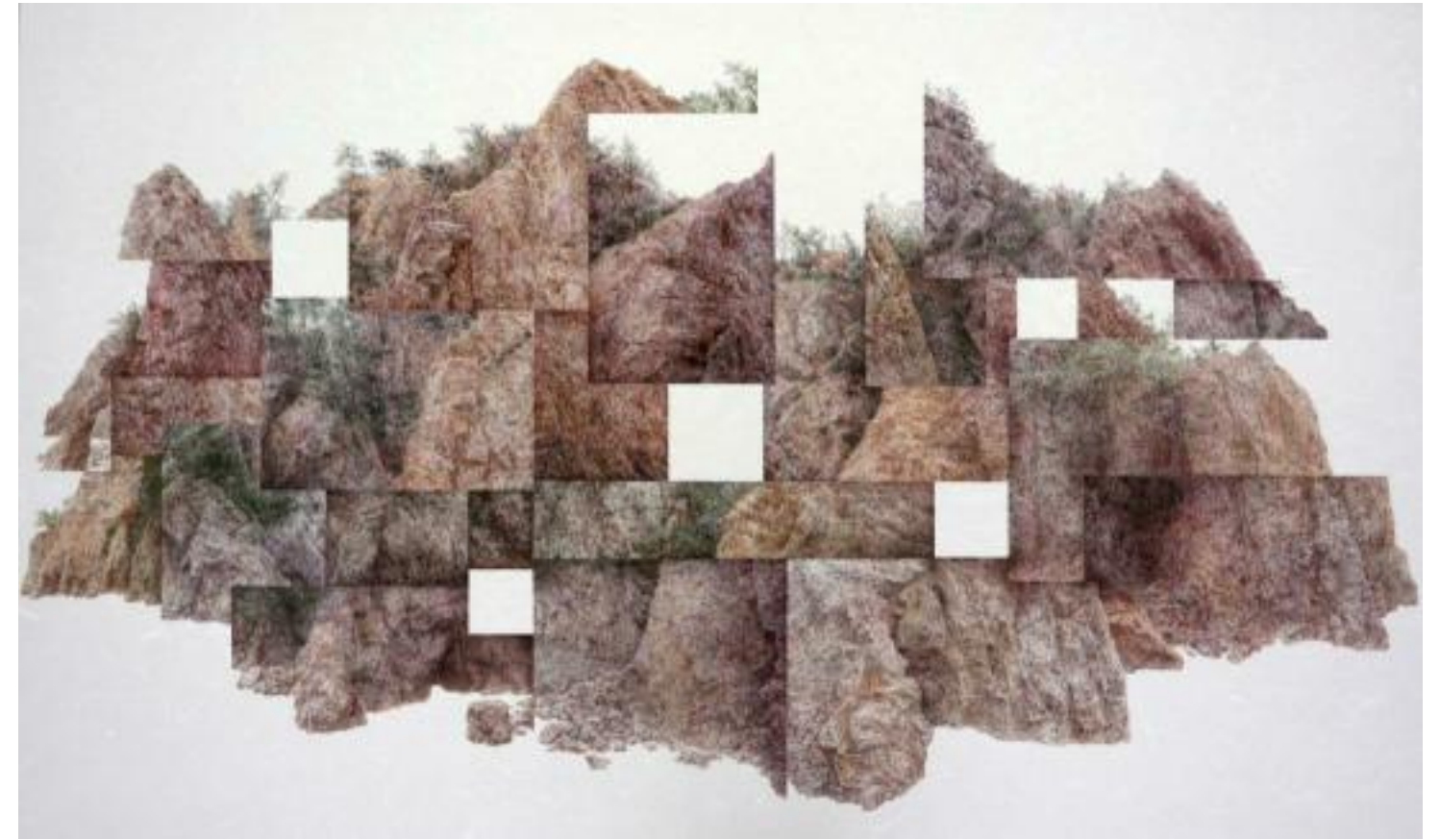
대강면3  
천 한지(합성섬유)에 먹, 아크릴릭, 호분\_97x162.2cm\_2025



대강면1  
천 한지(합성섬유)에 먹, 아크릴릭, 호분\_97x162.2cm\_2025



파도리2  
천 한지(합성섬유)에 먹, 아크릴릭\_97x162.2cm\_2023



파도리3  
천 한지(합성섬유)에 먹, 아크릴릭\_97x162.2cm\_2023



GRAND 3  
2019  
100cm x 100cm  
oil on canvas



전시전경

# 김형진 KIM Hyoungjin

김형진은 한국화의 현대적인 계승을 위해 기법과 재료적 변화를 모색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다. 여행 중 떠오른 발상에서 시작된 작가의 작업은 한국의 밥상에 국내 여행지의 풍경을 담는 형태로 표현되며, 현재까지도 일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에 상상을 더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동양 회화의 표현과 내용연구를 통해 작품 속에 고전의 그림을 삽입하기도 하며 전통과 현대, 일상과 이상의 경계를 허물고 상상의 세계를 만든다. 단원과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식도락이 포함된 여행기로 담아보는 시도를 위해 작가는 음식과 산수가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화면을 구성하고, 나아가 물질과 정신의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이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창밖의 풍경은 지난 추억을 방안으로 이끌고  
장지에 수묵채색\_117x91cm\_2025



얼~쭈(안동하회마을 자반고등어)  
장지에 수목채색\_89.4x145.5cm\_2025



짜안~(병산서원과 안동소주)  
장지에 수목채색\_91x61cm\_2025



茶香萬里(차의향기는 만리에 퍼진다)  
장지에 수묵채색\_130x200cm\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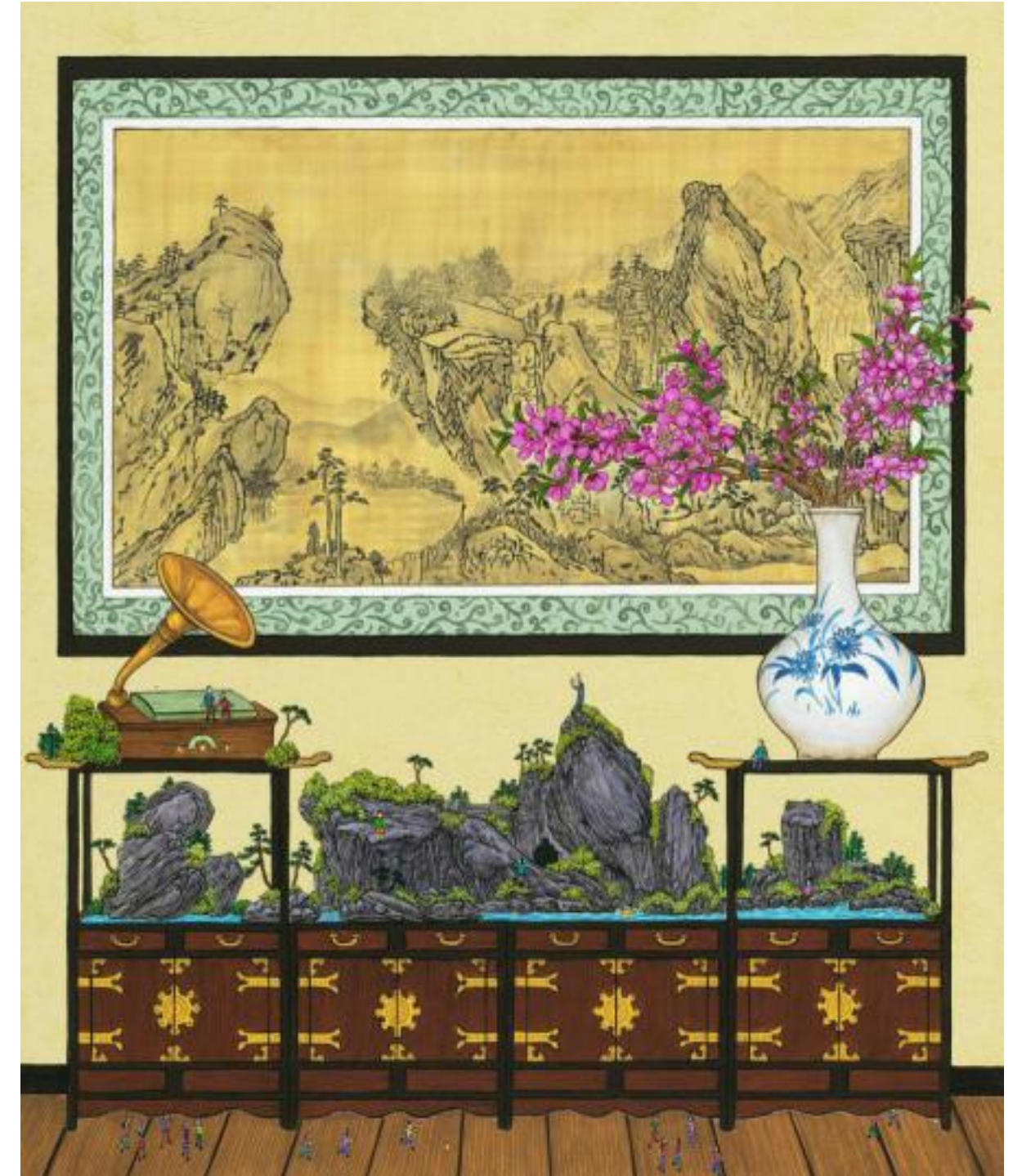


그림 속 그림(강산무진도)  
장지에 수묵채색\_162x130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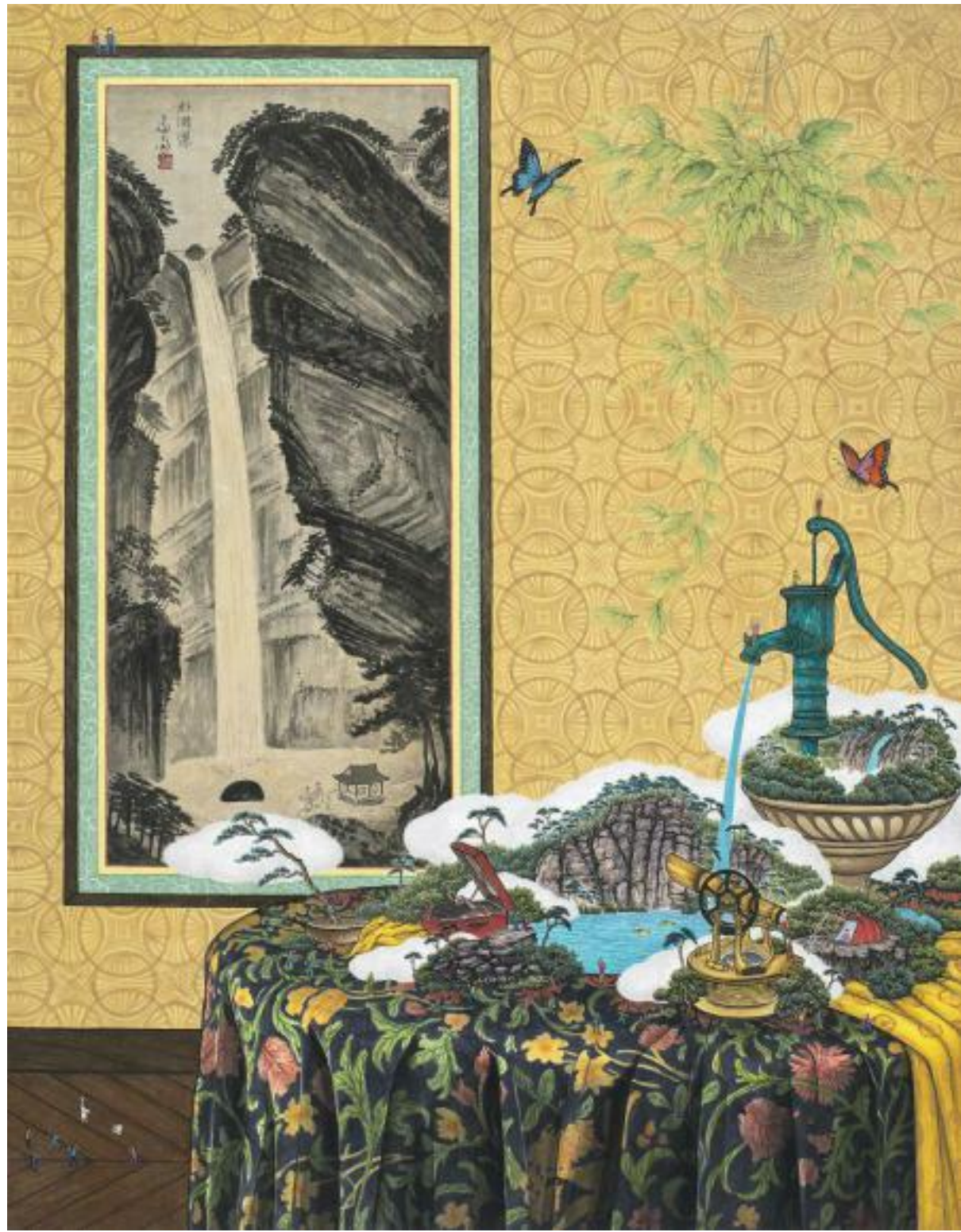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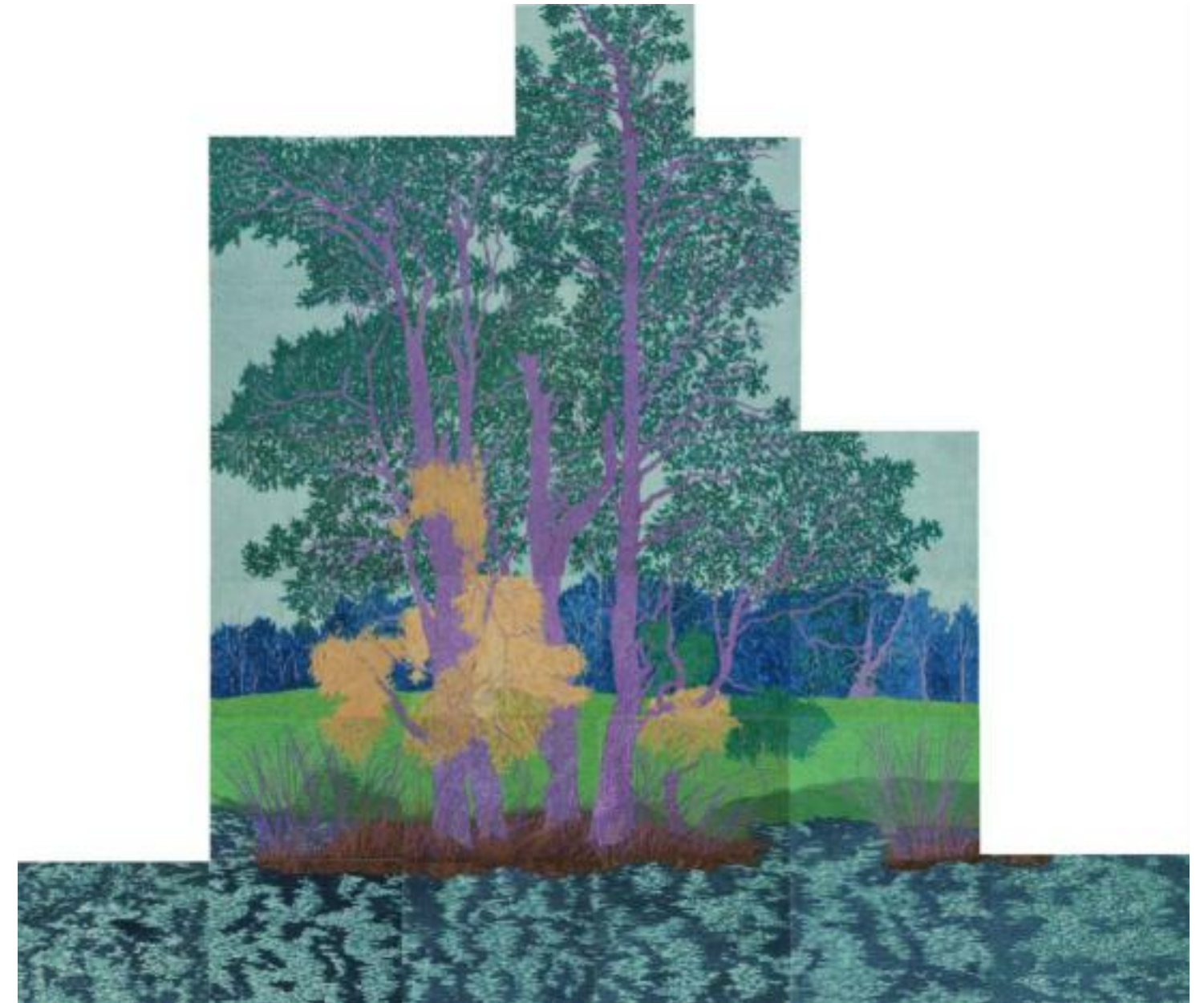


그림 속 그림(물의 소리)  
장지에 수묵채색\_117x91cm\_2024





선민정은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이 연결된 원시의 숲, 무한한 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느낀 감각의 회복을 표현한다. 작가에게 있어 숲은 인간 세계의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질서로 생명을 이어가는 공간이며, 잃어버린 시원(始原)의 공간이자,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거대한 유기체이다. 나무껍질, 잎사귀, 낙엽이 즐비한 숲의 표면이 품은 선과 결을 포착해 고유의 질감과 층을 표현하고 숲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미세한 생명의 흐름을 그려낸다. 작가에게 각 선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결은 자연의 언어이자 작가의 기호이며, 이를 통해 관객이 화면 속에 더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도록 한다. 작가는 시각을 넘어 촉각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자연의 표면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선민정**  
**SUN Min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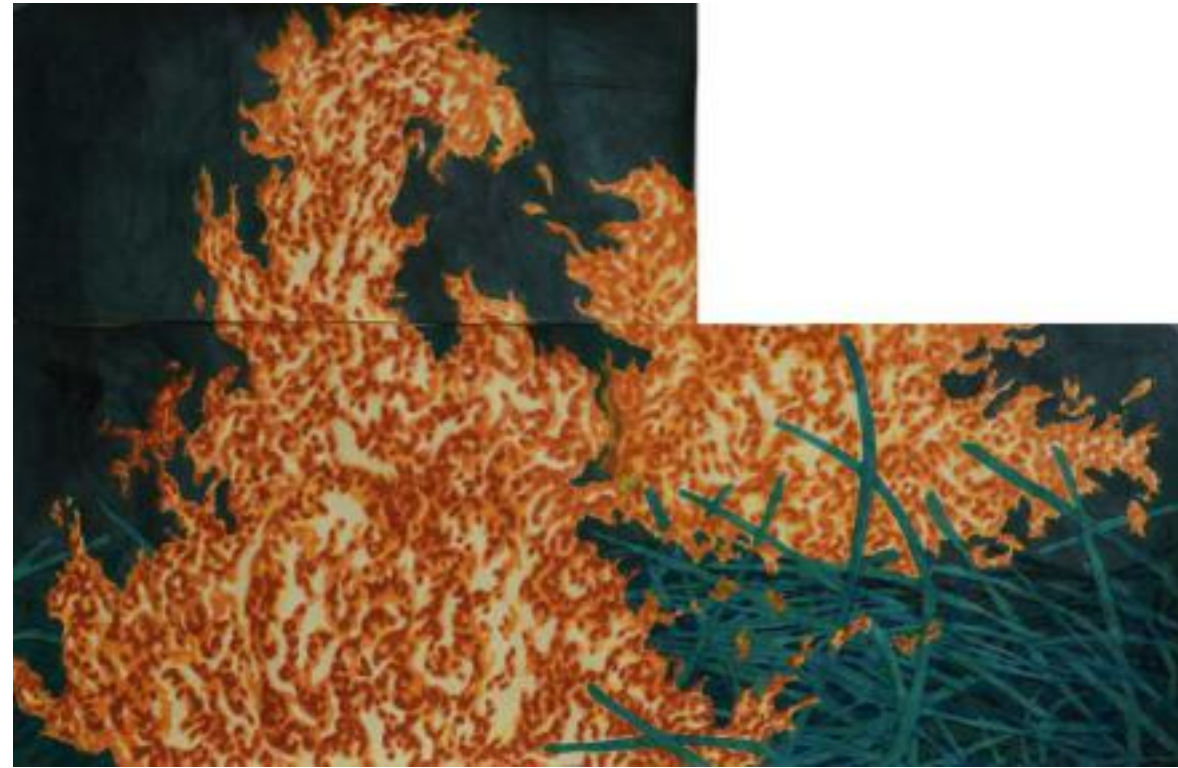
안락지대  
장지에 분채\_191.1x208.8cm\_2025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장지에 분채, 먹, 건식재료\_162.2x260.6cm\_2024



녹색갈증\_침투1  
장지에 분채, 먹, 건식재료\_65x85cm\_2024



감싸안고 흠어지는  
장지에 분채\_58x91.5cm\_2024



요란한 고요  
장지에 분채\_149x30cm, 148x26.5cm, 148x38cm\_2024~



녹색갈증  
장지에 분채\_65.1x100cm\_2024





012



013



014

# 염지희 YEOM Jihee

염지희는 콜라주를 주요 조형 언어로 사용하여 문학과 철학, 개인적 경험과 꿈에서 영감받은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 심연의 깊이와 진실된 힘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단순히 사진을 오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사진 속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 드로잉을 더하고, 현실과 환영의 경계를 허무는 비선형적 콜라주를 환영에 담는다. 익숙하지만 낯선 이미지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마치 별자리와 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상상력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는 혼돈의 시대에서 영혼에 다가가는 힘은 '상상'과 '환영적 이미지'를 만드는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현실을 재구성하여 현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NOCTURAMA : Valentin's Ax #60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12.1cm\_2025



NOCTURAMA : Valentin's Ax #1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12.1cm\_2024



NOCTURAMA : Valentin's Ax #2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62.2cm\_2024



NOCTURAMA : Valentin's Ax #3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12.1cm\_2024



NOCTURAMA : Valentin's Ax #4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62.2cm\_2025



NOCTURAMA : Valentin's Ax #5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62.2cm\_2025



NOCTURAMA : Valentin's Ax #10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12.1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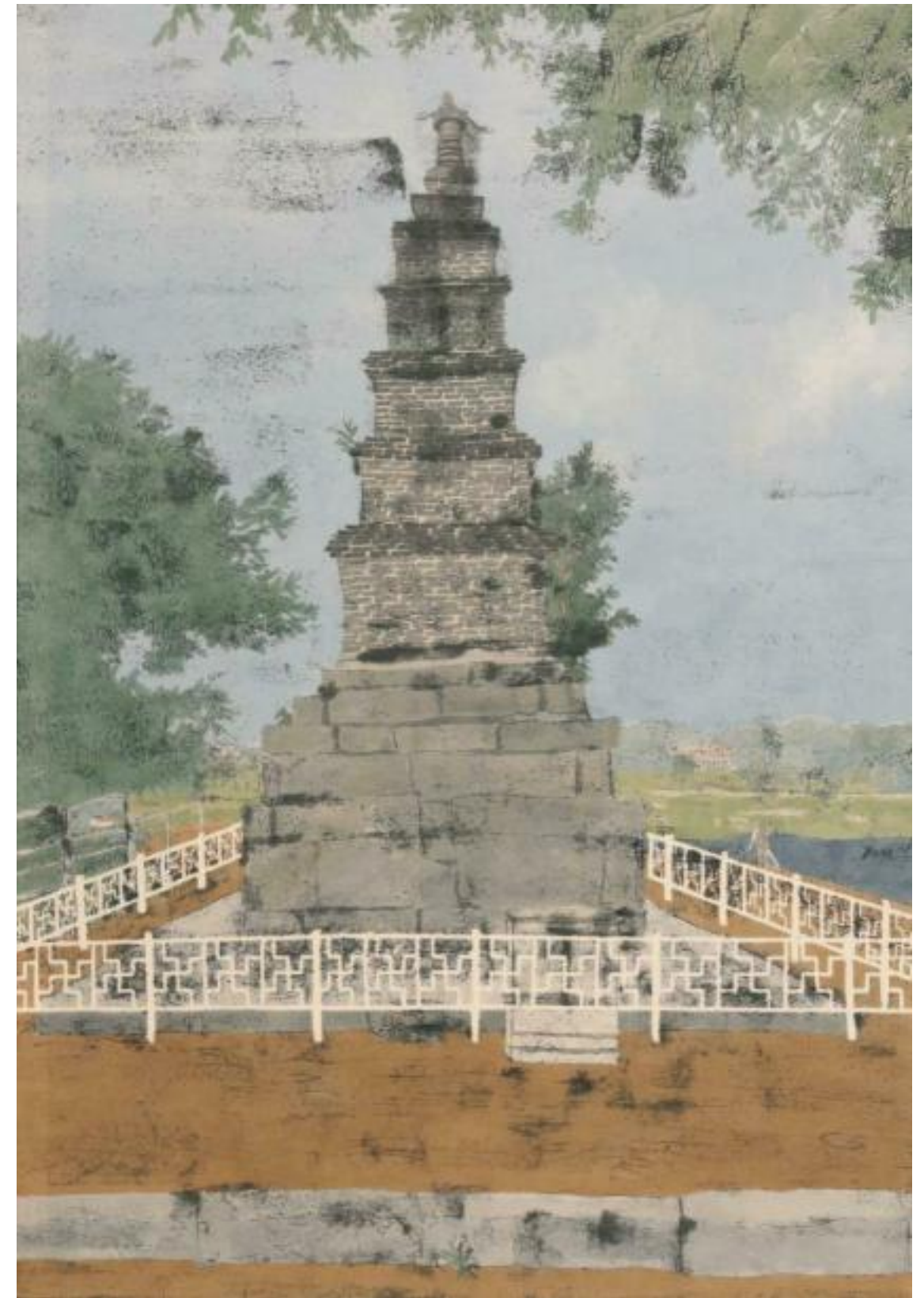


NOCTURAMA : Valentin's Ax #11  
 천 위에 콜라주, 연필, 목탄, 석채\_112.1x112.1cm\_2025



# 이윤빈 LEE Yunbin

이윤빈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탐구와 그 관계성에 대한 오늘날의 시각을 회화로 제작한다. 작가는 직접 발을 디디고 경험한 장소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안정감을 느낀다. 이에 수많은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내재된 사회적 관념과 작가의 시선이 반영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는 시도를 작업화해왔다. 작가는 스스로를 감각하는 곳으로서의 장소에서 나아가 자본의 요구대로 이미지화된 상품으로서의 장소와 구조물에도 주목한다. 장소와 구조물에 부여되었던 상품성이 충분히 소모된 후 남겨진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두꺼운 한지의 뒷면에 먹을 칠하고 굵어내는 수묵 및 배채 기법 등을 활용해 이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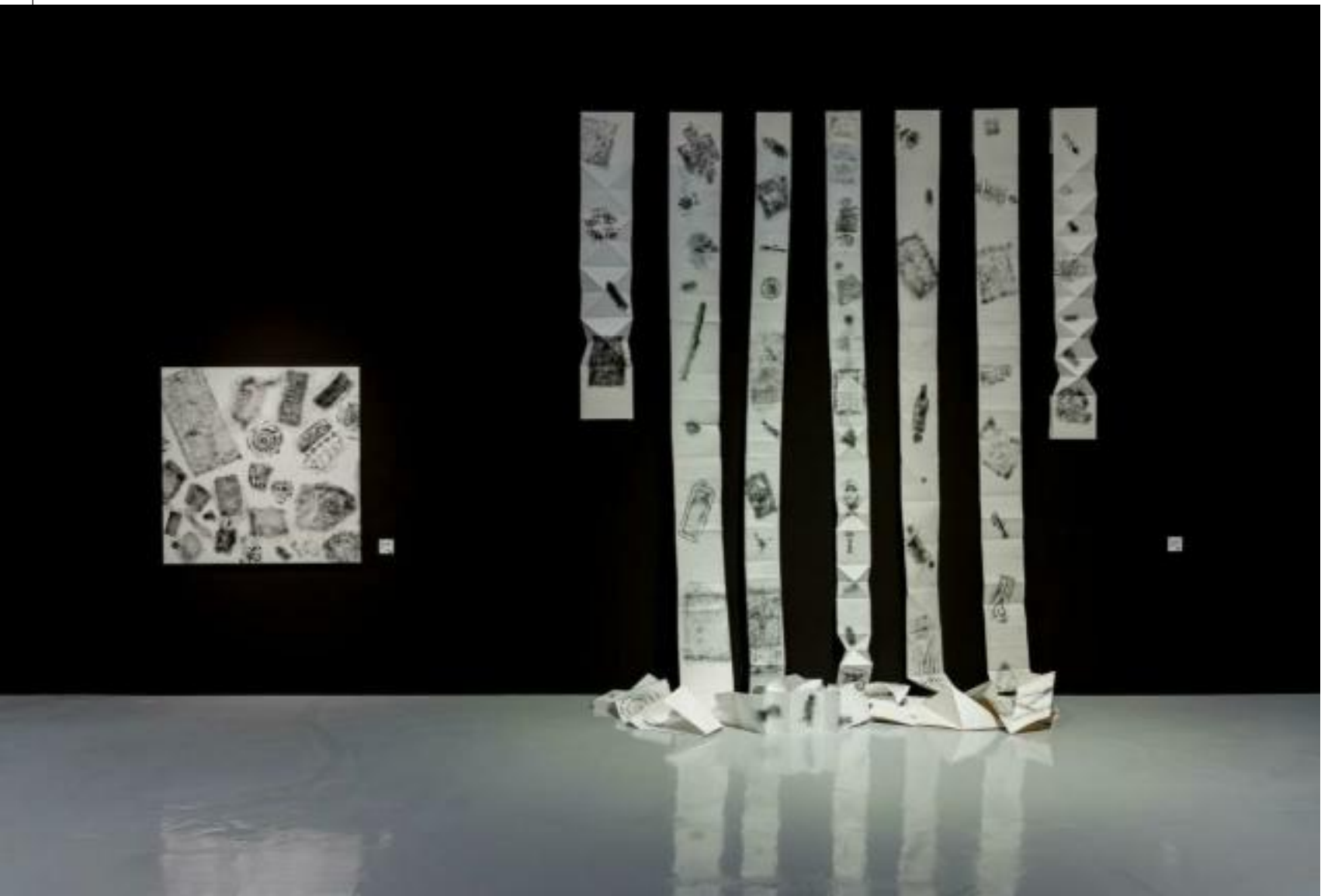
다층전탑  
장지에 수묵채색\_162.2x112.1cm\_2025



장생포항2  
장지에 수묵채색\_224.2x436.5cm\_2023



매립지  
장지에 목탄, 수묵채색\_260.6x579.9cm\_2024



좌) 현상의 사물들  
순지에 탁본\_112.1x112.1cm\_2024

우) 사라질 잔재들  
나무판넬에 한지탁본(가변설치)\_20x20cm\*2, 25x25cm\*3, 30x30\*2\_2025



테쉬폰  
장지에 수묵담채\_112.1x162.2cm\_2022



01



02

#### 이윤빈 LEE Yunbin

이윤빈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탐구를 그 건축성에 대한 오늘날의 시각을 향하여 제작한다. 작가는 지역 문화 디디고 문화의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연결감을 느낀다. 이때 수많은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와 작가의 시간이 반영된 아이디어를 생산해 왔다. 작가는 자신의 연구(대중 아이디어)를 실험으로서의 장소의 구조물에도, 구체적으로 장소의 구조물에 부여되었던 성형성이 소모된 후 남겨진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전경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마음이 날다> 연작은 관계라는 복잡한 그물망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흔적과 정서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한다. 작품 속 종이비행기는 마음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상상과 소망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상과 바람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징한다. 또한 종이비행기는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존재로, 작품을 보는 관람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작품에 관념적 개입을 위한 조형적 요소의 탐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 선, 면이라는 기본 조형언어를 단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감각적 경험 이전에 본질적인 정서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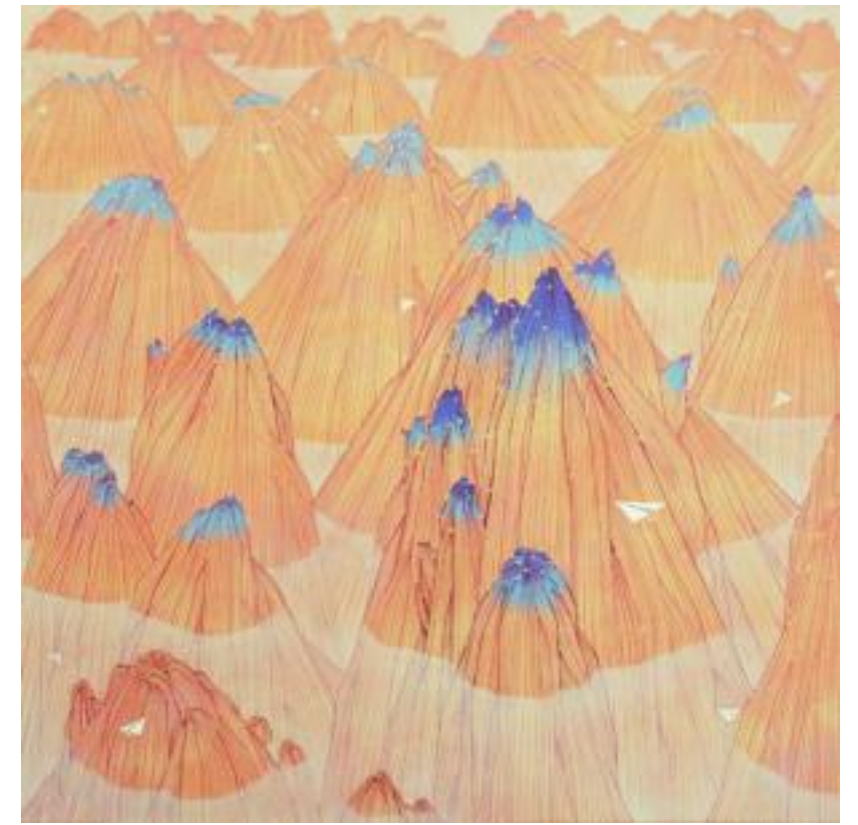
# 이윤정 LEE Yoonjung



마음이 날다\_174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112.1x162.2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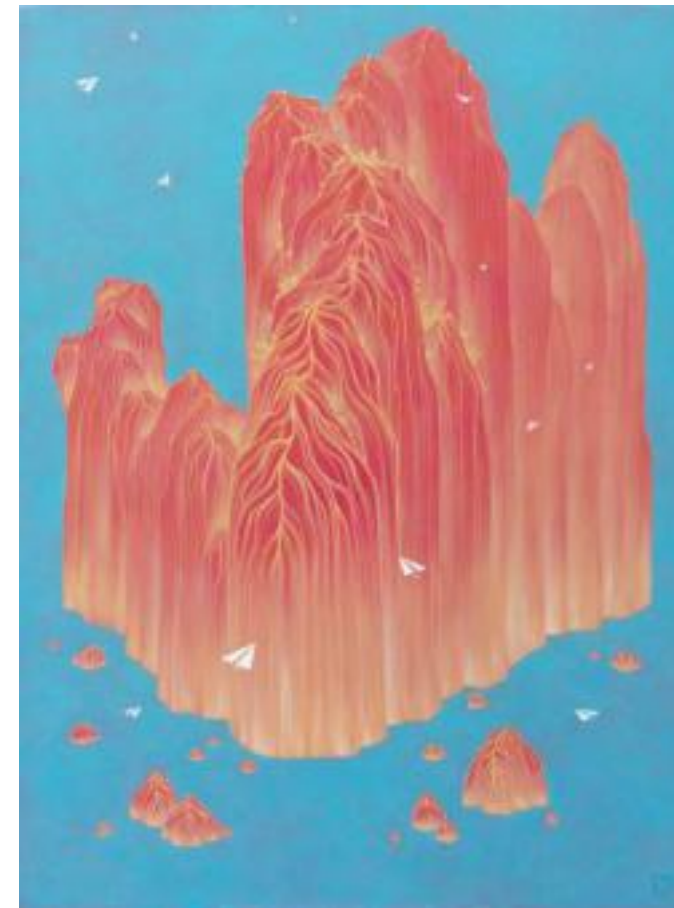
마음이 날다\_136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72.7x90.9cm\_2023



마음이 날다\_116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91x91cm\_2022



마음이 날다\_131, 132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각 112.1x162.2cm(2pieces)\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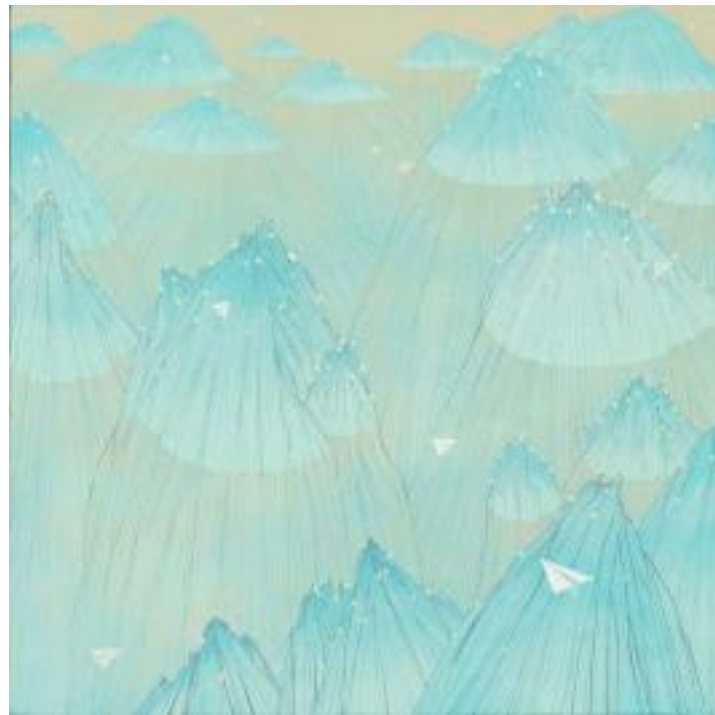
마음이 날다\_82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145.5x112.1cm\_2023



마음이 날다\_171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72.7x53cm\_2025



마음이 날다\_115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145.5x112.1cm\_2022



마음이 날다\_123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65.1x65.1cm\_2022



마음이 날다\_121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65.1x65.1cm\_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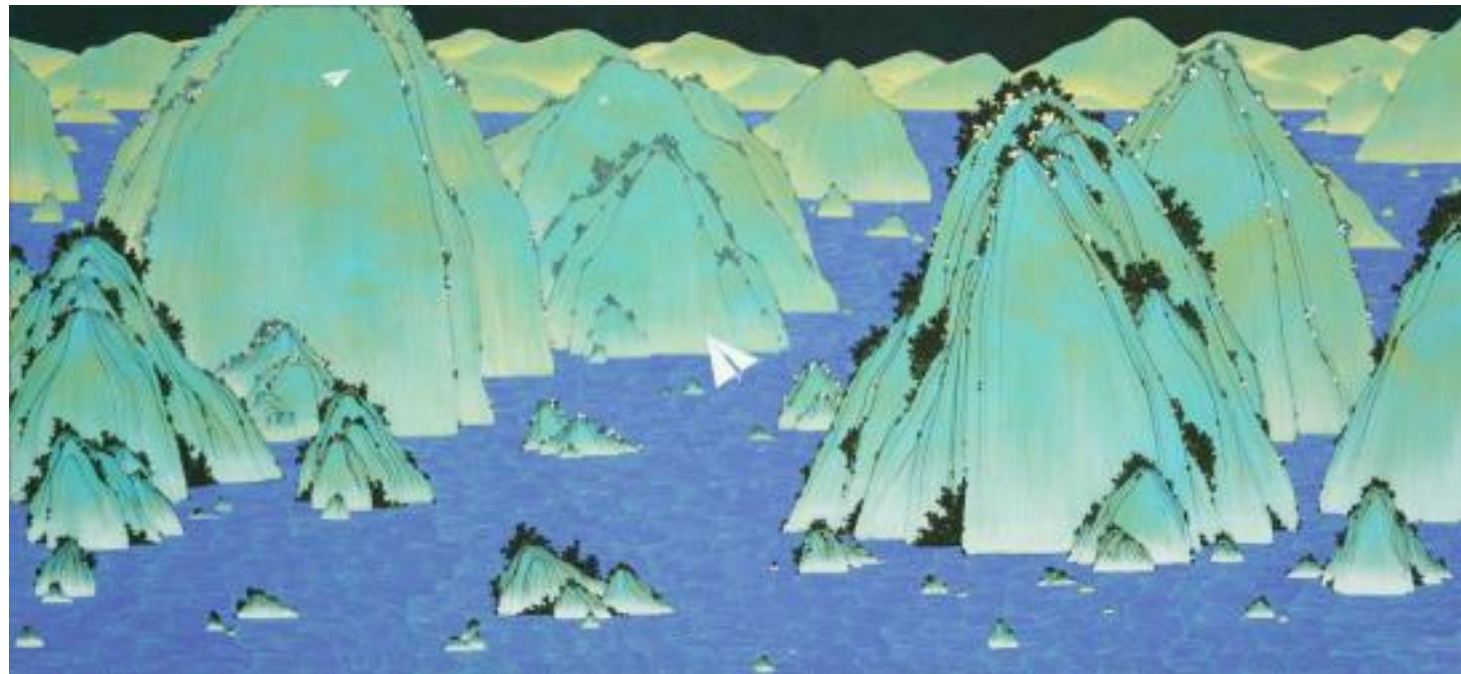
마음이 날다\_111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45.5x45.5cm\_2022



마음이 날다\_81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89.4x130cm\_2022



마음이 날다\_72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162.2x97cm\_2020



마음이 날다\_71  
캔버스에 아크릴과슈\_97x162.7cm\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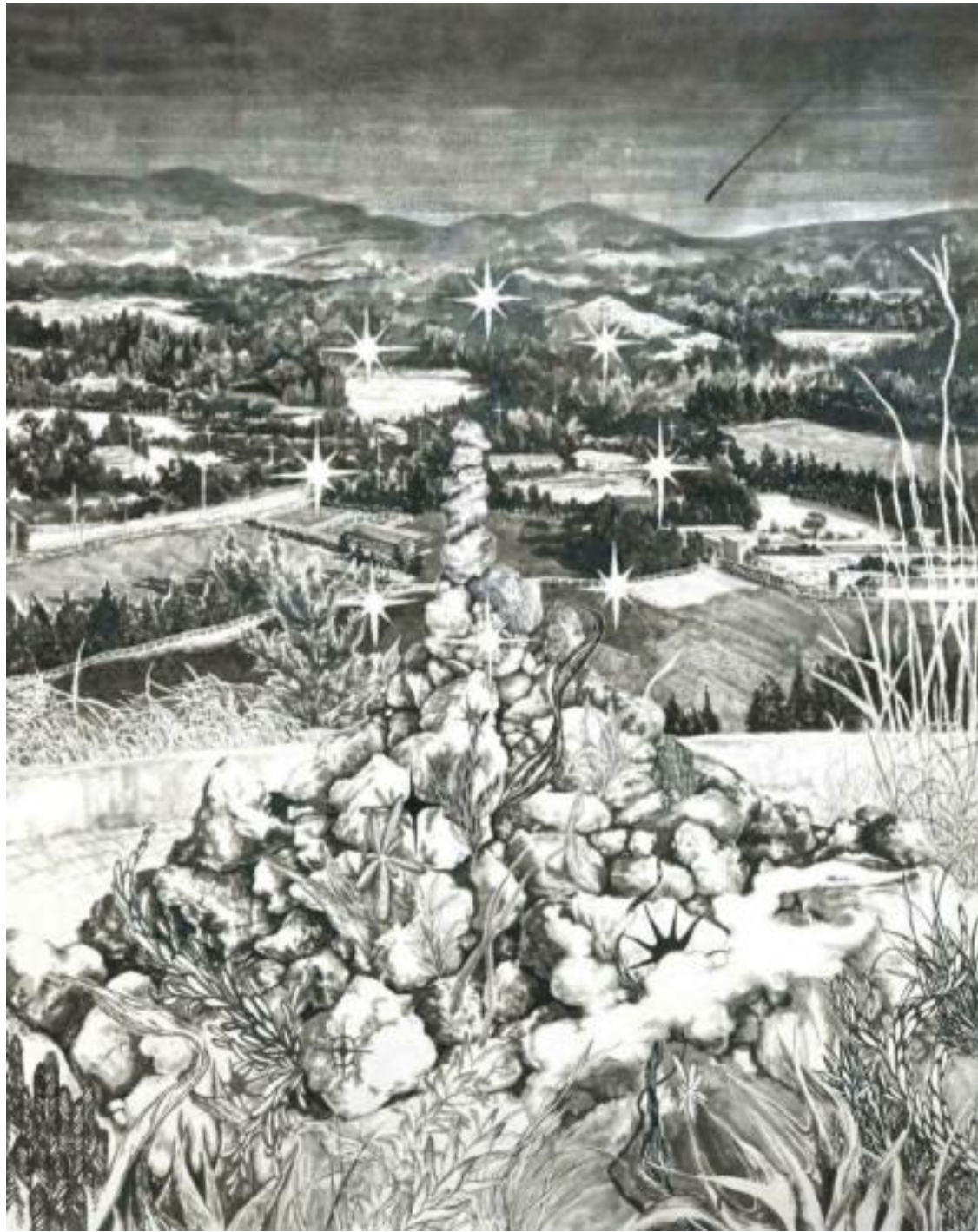


# 전효경 JEON Hyokyoung



전효경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이사의 경험에서 기인한 결핍과 소유의 욕구를 화면에 뽁뽁하게 나열한다. 온전한 정착 경험 및 안정감의 부재는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낳았고, 작가는 이를 화면 안에 두서없이 풀어내며 해소하기 시작했다. 2024년 제주도의 레지던시에 들어간 작가는 서울과 김포, 제주를 수없이 이동하던 중 속에서 차오르는 것들을 게워내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고 이러한 감정을 장지 위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움과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제주에서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게워낸 화면엔 소설, 꿈, 상상, 풍경 등이 섞여 자리한다. 이처럼 작가는 어지러이 혼재하는 일상을 도상으로 비유해 화면에 나열하며 이는 스스로의 결핍감을 다독이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이다. 동시에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자아를 가진 이들의 내면에도 자신의 회화가 스며들기를 바란다.

작별하지 않는다  
장지에 수목과 펄 안료\_193.9x521.2cm\_2024



금오릉의 쌓인 소원  
 장지에 수목과 풀 안료\_130.3x162.2cm\_2024



맥시멀 서귀라이프  
 장지에 수목과 풀 안료\_116.8x236.4cm\_2024



군산오름의 노루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순간  
장지에 수묵과 펄 안료\_116.8x91cm\_2024





108



109



110

**전효경 JEON Hyok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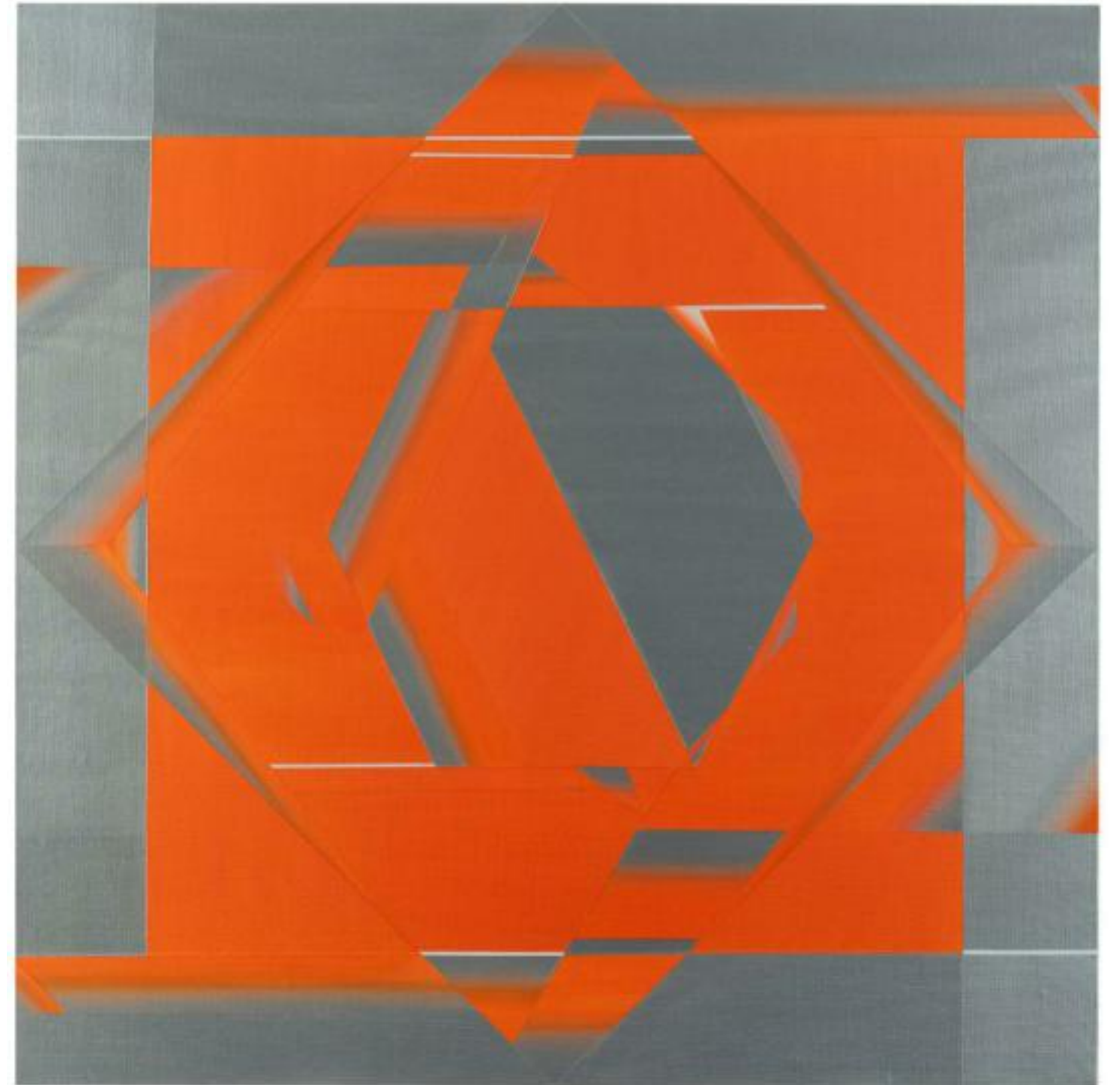
전효경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이사의 경험에서 기인한  
관심과 소유의 욕구를 원인에 탐색하게 되었다. 모진한 정적  
경험과 안정감의 부재는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낳았고, 작가는 이를 화면 안에 두서너개의 물아래 레소리가  
시작했다. 전효경의 화화는 스스로의 경험을 재우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이며, 자신의 화면가 여타가게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자아를 가진 이들의 내면에도  
스며들기를 바란다.

전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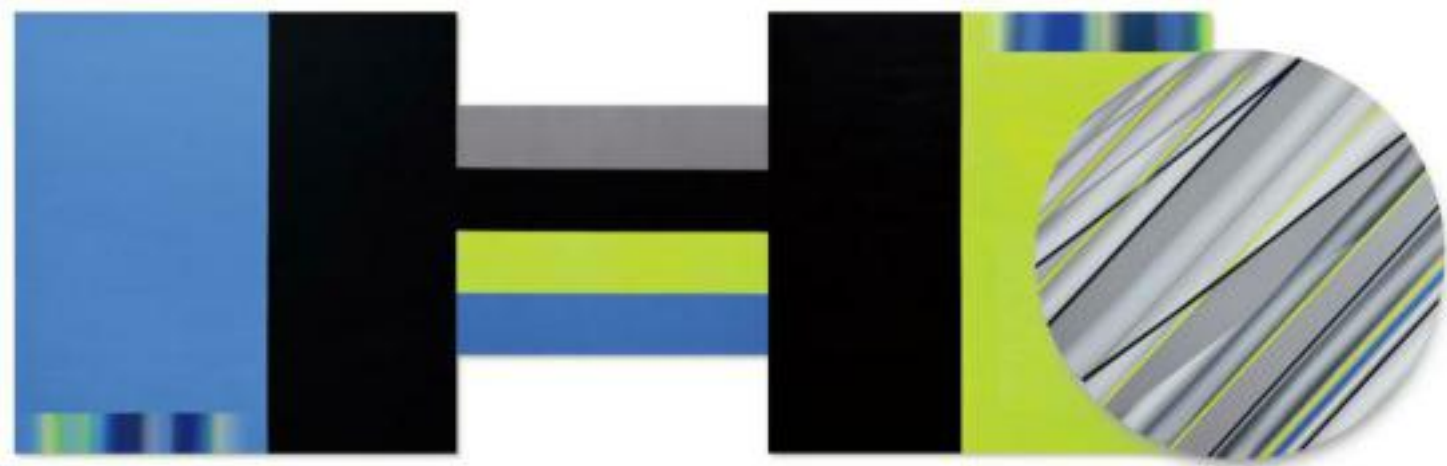


정현정은 가시적이며 동시에 비가시적인 '빛'의 형상을 기하학적 추상의 빛으로, 작품 안에서 보이는 존재로 이미지화한 실존적 성찰의 빛으로 구현해 역동적 생명 에너지를 표현한다. 그의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형캔버스, 패널, 그 밖의 오브제와 모티프를 일컫는 변칙적 피스들의 조합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층위로 구현되는데 작가는 이를 변칙적 층위라 명명한다. 작가는 변칙적 피스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이 시대의 반영으로서의 색채에 대해 고민한다. 빛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단순한 기호체계의 '색'에 그치지 않고 보이는 현상과 그 이면에 무수히 많은 변수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적응과 부적응 등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고자 시도한다. 작가는 디지털 시대의 색채 연구를 지속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삶의 층위를 이해하고, 많은 변수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또 다른 삶의 층위를 형성하는 과정을 상상하길 희망한다.

## 정현정 JUNG Hyunjung



illuminating existence-2777  
캔버스 위에 아크릴\_72.7x72.7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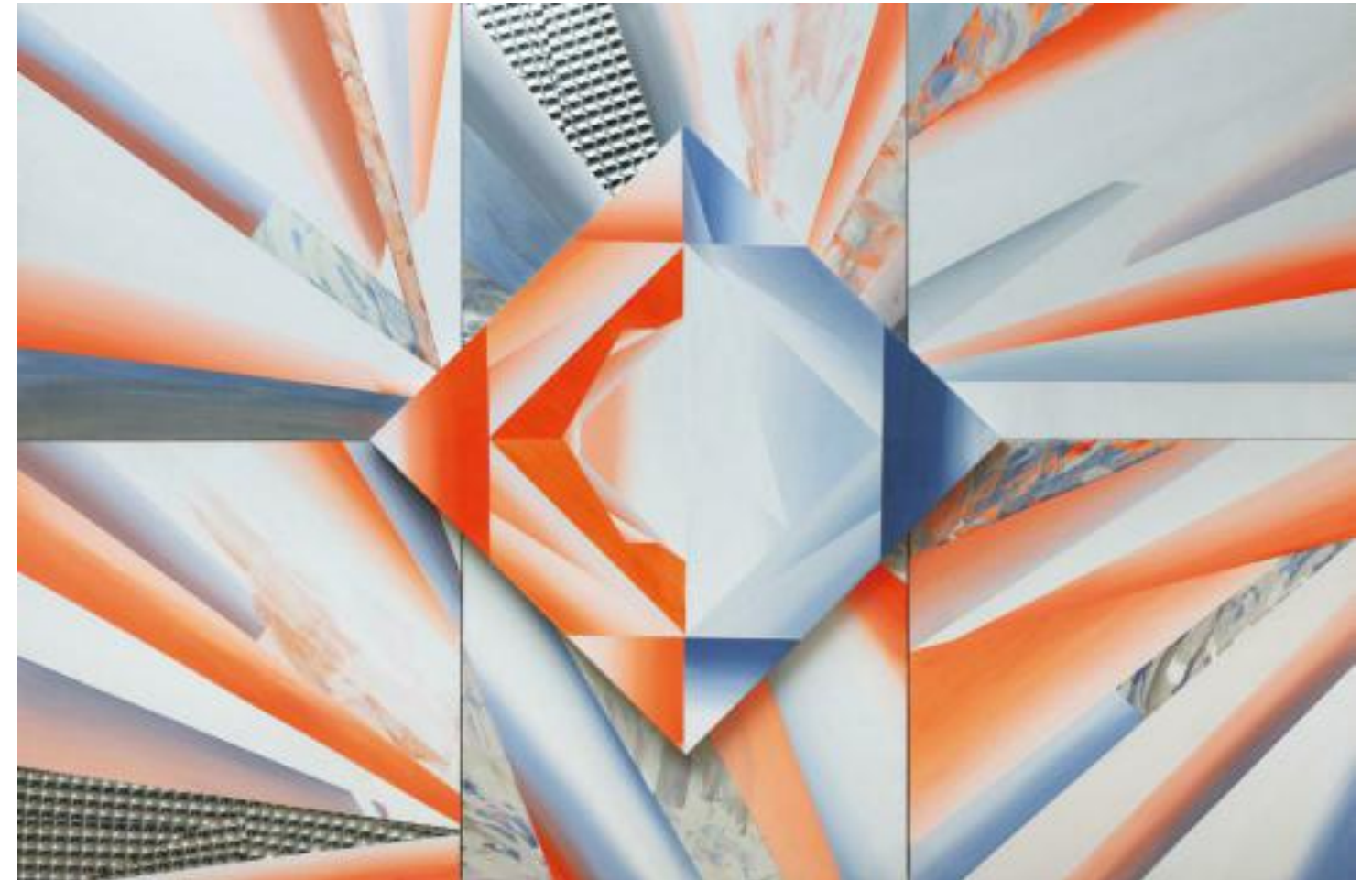
illuminating existence-2507  
캔버스 위에 아크릴\_130.3x411.5cm\_2025



illuminating existence-2334  
캔버스 위에 합판, 아크릴, 글리터 혼합재료\_210x110cm\_2023



illuminating existence-2509  
캔버스 위에 합판, 아크릴\_180x225cm\_2025



illuminating existence-2513  
캔버스 위에 아크릴 혼합재료\_182x273cm\_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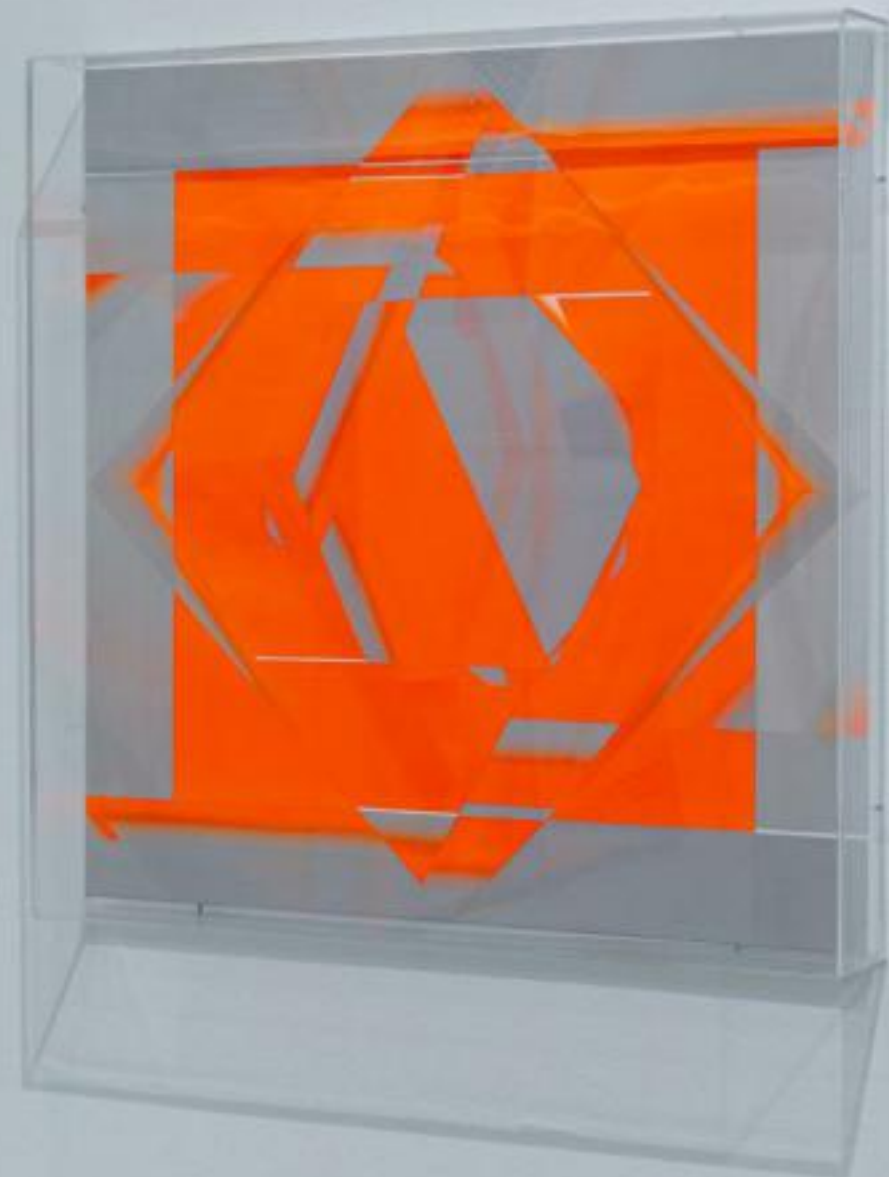


**20255 JUNG Hyunlun**

정현륜은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 전공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학했다. 2004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5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6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7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8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9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0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1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2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4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5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6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7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8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9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0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1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2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3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4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25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현륜



정현륜  
Jung Hyunlun  
20255

# 현덕식 HYEON Deoksik

현덕식은 얼음이 녹아 흐른다는 뜻의 유시(流漸)와 섬을 뜻하는 도(島)를 조합하여 만든 '유시도' 시리즈를 통해 작가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내보인다. 작가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 얼음에서 물로, 다시 얼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인간 내면에 고착된 욕망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파악했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단단한 얼음이 물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 얼음의 맑고 투명한 물성을 표현하기 위해 장지에 먹을 쌓아 올린 뒤 닦아내는 과정의 반복을 선택했다. 현재 작가는 동백꽃, 달항아리처럼 명확한 형상을 가진 얼음을 그리며 보이지 않는 욕망의 모양을 그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필수불가결한 욕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결국 삶의 중심은 관람객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62x130cm\_2025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73x61cm\_2024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94x112cm\_2024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94x112cm\_2024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94x112cm\_2024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12x194cm\_2023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12x194cm\_2023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12x194cm\_2022



유시도 流漸島  
한지에 먹\_130x162cm\_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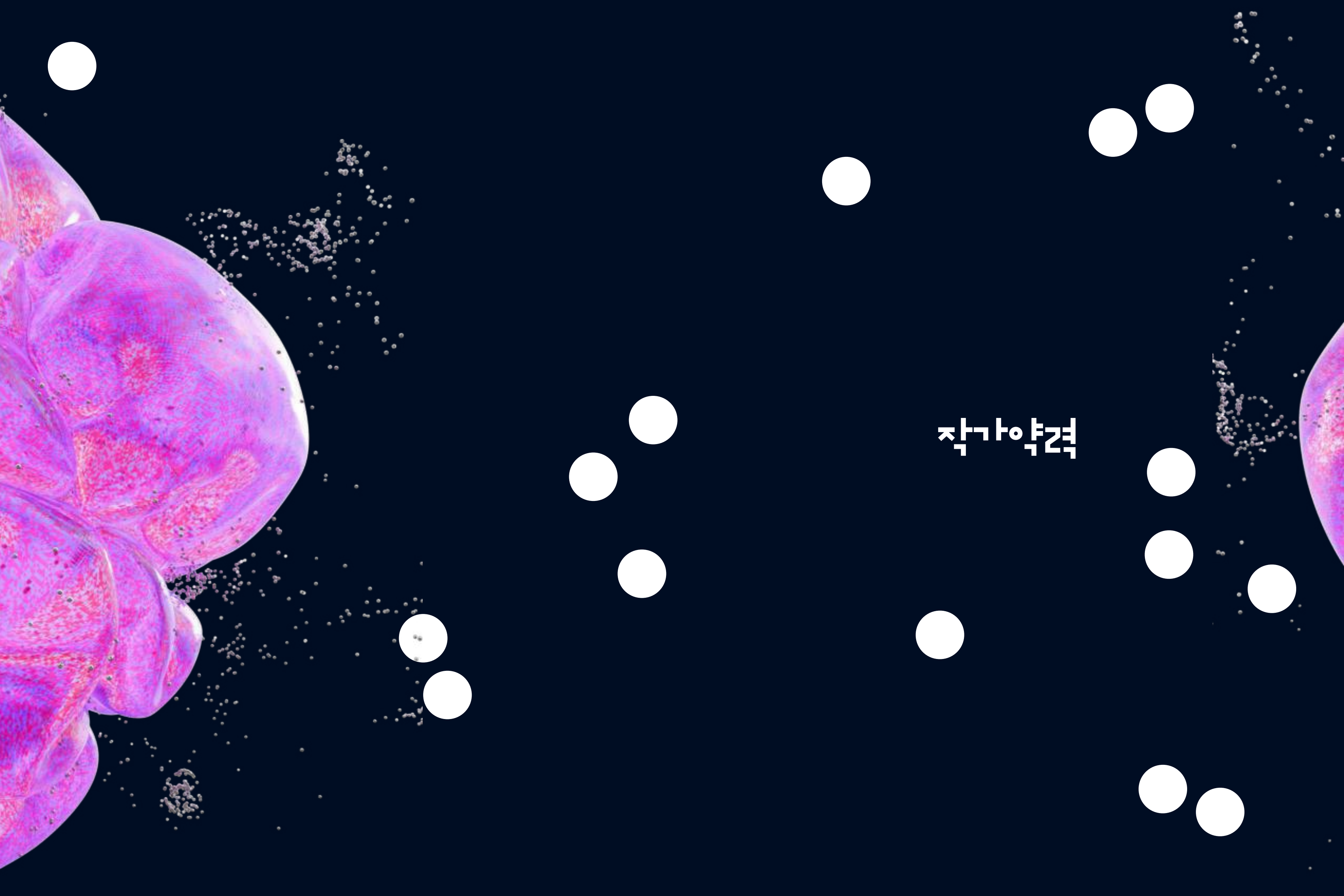


1



2





작가야작

## 김준기 KIM Junki

<b>학력</b>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
2000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학사

<b>개인전</b>
2023 《타자의 풍경》, 비오케이아트센터갤러리, 세종/ 김제시 이동형 미술관, 김제, 한국
2022 《타자의 풍경》, 비오케이아트센터갤러리, 세종, 한국/ 전북도립미술관 JMA 서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0 《타자의 초상》, 갤러리 밈, 서울, 한국
2015 《타자_他自의 풍경》,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 청주, 한국
2014 《타자_他自의 초상》, 팔레 드 서울 갤러리, 서울, 한국
2013 《타자_他自의 초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1 《Reflected Landscape》, 관훈 갤러리, 서울, 한국
2009 《Seen City》, 벨벳 인큐베이터/ 관훈 갤러리, 서울, 한국
2007 《낮선 거울속의 도시를 걷다》, 관훈 갤러리, 서울, 한국
2006 《鏡都散策 - 낮선 거울속의 도시를 걷다》, 갤러리 꽃 청년작가 기획초대, 서울, 한국
2004 《보이는 것 - 내부로부터의 바라봄》, 한전플라자 갤러리, 서울, 한국
2002 《思惟속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세상》, 우봉 미술전시관 기획 초대, 대구, 한국

<b>주요 단체전</b>
2025 《Korea-Malaysia 현대미술교류전》, 예술곳간, 청주, 한국 《ARTS 7th - SPRING&SUMMER》, 서울클럽&갤러리박영, 한국 《제7회 축적된 즉흥전》,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 서울, 한국 《미술관에서 길을 묻다전》, 진도현대미술관 외 3곳, 진도, 한국
2024 《BAKYOUNG THE SHIFT9》, 갤러리박영, 파주, 한국 《아트하이웨이 생생+색색전》, 네오아트센터 N3, N4관, 청주, 한국 《예술곳간 초청 현대미술전》, 예술곳간, 청주,한국 《용-시대정신을 잇다》, 갤러리 세인, 서울, 한국
2023 청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전 《건축, 미술이 되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상이(相異) - 삶의 예찬》, 인사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세종을 그리다 - 마주한 시선》, 박연문화관, 세종, 한국 《호연재 VOL.4》, 대덕문화원, 대전, 한국 《아트하이웨이 생(生)+환(還)전》 청주한국공예관문화제조창, 청주, 한국
2022 《증강풍경 - AR로 보는 소장품》,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오창, 한국 《내일의 풍경전 - AR로 보는 소장품》,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광주 화루전》, KJ상생아트홀, 광주, 한국 《담양 아트워크 - 유유자적》, 다미담예술구, 담양, 한국 《대전-충청 지역작가 특별전》, 대전 신세계백화점, 대전, 한국
2021 《물과 바람의 시간》,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한국 《생-우여곡절》,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 청주, 한국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노적봉 미술관, 목포, 한국 《나우아트페스티벌》, 전북예술회관, 전주, 한국

2017 《Meta-scape》, 우양미술관, 경주, 한국 《제1회 해남 담주 국제 비엔날레-이질동구전》, 담주, 해남, 중국
2016 《오창정미소-생산자의 영토》,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오창, 한국 외 다수

<b>수상 및 선정</b>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단원미술대상 수상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3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2 제6회 광주화루 우수상 수상 (광주화루운영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세종시문화재단)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전시공모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2020 충북문화재단 서울전시지원_중견작가 선정 (충북문화재단) 외 다수

<b>레지던시</b>
2012~2013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제6기 입주작가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여주시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 (주)레이크머티리얼즈, 충북대학교병원 외 개인 소장자

## 김민호 KIM Minho

<b>학력</b>
200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전공(석사)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학사)

<b>개인전</b>
2024 《Flow the City》, 대림창고갤러리, 서울
2022 《Empty》, 갤러리 공간미끌, 서울
2019 《기념비들》, 갤러리 조선, 서울
2018 《접촉하는 시선들》,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17 《OVERLAP》, 갤러리 인덱스, 서울
2015 《적_積》, space 22, 서울
2014 《時點_연속된 시간의 지점들》, 한벽원갤러리, 서울
2013 《보는것과 믿는것_continuous scenery》스페이스 선+, 서울 《Flowing scenery》,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2012 《cctv_Seoul 360 point of view》, 화봉갤러리, 서울 외

<b>주요 단체전</b>
2025 《Flow the city(그림한점 프로젝트)》, Window_dol, 서울 《수목무진》, 지누e음 갤러리, 경기 안양
2024 《스며드는 시간(전통의 재발견:현대와의 조우)》, United Gallery, 서울 《ANONYMOUS EXHIBITION》, Art Central Hong Kong, Hong Kong
2023 《여름생색전》, 가송예술상,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2 《산수권_연산회 국제수목전》, 웨이하이미술관, 중국, 웨이하이시 《수직의 수면》,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2021 《Undoing》, 임시공간, 인천 / 서울13, 서울 《Cre8tive report (OCI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전)》, OCI미술관, 서울
2020 《OCI 창작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OCI 창작레지던시, 인천 《아트프라이즈 강남》, Ig하우스, 서울 강남구
2019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Sovereign Asian Art Prize》, HART Hall at H Queen’s, Hong Kong
2018 《몽유인왕》, 자하미술관,서울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광주화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2017 《Wayfarer(Project on #2)》, Gallery Damdam(주독일 한국문화원), Berlin 《Sovereign Asian Art Prize》, The James Christie Room, Hong Kong
2016 《Cross over》, 갤러리 인덱스, 서울 《2015 SeMA collection showcase》,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유연한 시선》, 모란미술관, 경기도 남양주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4 《제 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3 《우리시대의 진경(眞鏡)》, OCI 미술관, 서울 외 다수

<b>수상 및 선정</b>
2023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2019 인카네이션 미술상,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소마드로잉센터 등록작가, 소마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선정작가 Sovereign Asian Art Prize Finalist, Sovereign Art Foundation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선정작가 제2회 광주화루 우수상, 광주은행
2017 Sovereign Asian Art Prize Finalist_Sovereign Art Foundation
2014 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JTBC
2012 뉴디스코스 작가선정 우수상, 사이미술연구소/사이아트갤러리

<b>레지던시</b>
2020 OCI레지던시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 하이트컬렉션, 서울시청 박물관

# 김형욱 KIM Hyungwook

## 학력

- 2005 홍익대학교 동양과 학사
- 2003 상명대학교 서양화 학사

## 개인전

- 2025 《비어있는 풍경》, 갤러리7, 서울
- 2024 《내면이 풍경을 구성할 때》, 아팅 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 2025 《AG신진작가대상 선정작가展》, 안국문화재단 AG갤러리, 서울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 주제 기획전》, 성남문화재단, 성남  
《제23회 겸재미술대전展》,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 2024 《CROSSWORD 단체기획전》, 갤러리 온도, 서울  
《제25회 신사임당미술대전展》, 강릉아트센터  
《EXPANDING YOUR HORIZONS 4인 단체기획전》, 갤러리 온도, 서울
- 2023 《제23회 안견미술대전展》, 서산문화회관 전시실, 서산  
《제7회 광주하루展》, 광주은행 아트홀, 광주  
《제10회 정선풍경미술대전展》, 정선문화원 전시실, 정선  
《위드아트展 단체기획전》, 갤러리 PAL, 서울  
《피드백 #3 단체기획전》, 아팅 갤러리, 서울

## 수상 및 선정

- 2025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선정작가 및 최우수상, 안국문화재단  
제23회 겸재미술대전 특선, 강서문화원
- 2024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모 선정, 성남문화재단  
제25회 신사임당미술대전 특선, 강릉
- 2023 제23회 안견미술대전 대상, 서산  
제7회 광주하루 공모전 선정작가, 광주은행  
제10회 정선풍경미술대전 동상, 정선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2024 KT&G x mcom x 김형욱 (ESSE ROYAL PALACE LIMITED EDITION)

## 작품소장

안국약품, 성남큐브미술관(성남문화재단), 서산시 문화회관(서산문화재단)

# 김형진 KIM Hyoungjin

## 학력

-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 졸업
-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 졸업

## 개인전

- 2024 《Drinking in the painting》, 이젤리, 부산
- 2023 《Imagine Nature on the Table》, Felix Frachon Gallery, 브뤼셀, 벨기에  
《Honey, I blew up the food》, Astar gallery, 타이페이, 대만
- 2022 《미식도락》,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2전시실, 청주
- 2019 《기묘한 식객 하루.K\_와신짬뽕》,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 2016 《맛있는 산수》, 팔레드서울, 서울
- 2015 《맛있는 산수》, 신세계갤러리, 광주
- 2010 《Object》, 금호유스퀘어갤러리, 광주
- 2007 《도시 속에 산다》, 관훈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 2025 《예술이랑 숨바꼭질》, 화성문화재단 열린공간 라크몽B동, 화성  
《생태의 집 - 한옥》, 사비나미술관, 서울  
《남남》, 여수 예술마루, 여수
- 2024 《Asia Art on paper》, Namusogallery, 헤이그, 네덜란드  
《여수국제미술제》, 여수엑스포, 여수  
《TaTar2024》, Galeri R.J katamsi,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초등미술교과서밖으로》, 삼각산금암미술관, 서울  
《아름 다름》, 헬로우뮤지엄, 서울  
《3세대 물결전》, 한벽원갤러리, 서울
- 2023 《Korea-China International Ink Exchange Exhibition》, 남경시문화관, 남경, 중국  
《Here is, Where we meet》, It's Ready space,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목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신도원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 2022 《4개의 풍경》, HTC 사옥, 타이베이, 대만  
《차이의 합성》, 인도한국문화원 백남준홀, 뉴델리, 인도  
《Our step, Our hope》, Artspace San Antonio, 샌안토니오시, 미국

## 수상 및 선정

- 2022 아르코중견작가프로모션 지원 선정
- 2019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1인 선정

## 레지던시

- 2023 Ruangmes56 레지던시, 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2021 청주시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4 북경창작센터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 2012-2013 양산동창작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0-2011 의재창작스튜디오, 의재문화재단, 광주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성남문화재단, 무안군오송우미술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서구청, 광주광역시북구청, 광주과학기술원, 삼성전자

# 선민정 SUN Minjung

<b>학력</b>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2016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b>개인전</b>	
2023	신세계 미술제 수상자 초대전 《생존기》, 신세계갤러리, 광주
2021	《선민정 展-나무 사이로》, 강동문화재단 신진작가 전시지원 공모, 강동아트센터, 서울
2020	《선민정 초대전》, 갤러리 라메르 신진작가 창작지원 전시, 갤러리 라메르, 서울 《선의 숲-선민정 개인전》, 현대미술작가 개인전 시리즈 공모, cica 미술관, 김포
<b>주요 단체전</b>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김홍도미술관, 안산 11회 환경미술제 《Whispers of nature:숨결에서 균열까지》,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24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백스코, 부산 《제2회 도계展-끝남과 시작》, 소달중학교(폐교), 삼척 《포트폴리오 프리뷰展》,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 부산 《Re:Art fair》, 아트스페이스 서촌, 서울 《붓다의 향기》,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22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결과보고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제주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문화역서울284, 서울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 신세계 갤러리, 광주
2021	《을지아트페어》, 을지트윈타워, 서울 《제3회 기획전시》 참여작가, 수창청춘맨손, 대구 《모두에게 멋진 날들》, 서울시청, 서울
2020	《붓다의 향기-전통을 잇다》, 동덕갤러리, 서울 《The next MEME in insadong》, 갤러리 라메르, 서울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 서울시 박물관과 서울예술재단/ 표갤러리 신진작가 지원프로그램 선정작가
2019	《나혜석 미술대전》,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LOGOS 전시 ‘말하다’》, western gallery, L.A
2018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 한가람미술관, 서울 《인천청년문화대제전》, 트라이보울, 인천 《ASYAAF》, DDP, 서울
<b>수상 및 선정</b>	
2022	신세계 미술대전 신진작가상
2019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
<b>레지던시</b>	
2022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b>작품소장</b>	
이중섭미술관, 서울시 박물관과, 갤러리 라메르 등	

# 염지희 YEOM Jihee

<b>학력</b>	
201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10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2010	홍익대학교 영상영화과 학사 졸업
<b>개인전</b>	
2025	《NOCTURAMA: Valentin's Ax》,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인천
2023	《THE ORNAMENT HERMIT: “I dreamed of this”》, 더레퍼런스, 서울
2018	《나는 미래를 보았다》, 엘리펀트 스페이스, 서울
2017	《냉담의 시》,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16	《계속 열리는 믿음》, 만석동 69-1, 인천 《오크 에스트 에님 코르푸스 메움(이것이 나의 몸이니)》, 행화탕, 서울 《놀리 메 탄게레(나를 만지지마라)》,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인천
2015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스페이스 1, 인천
2013	《From Hysteria-To the Stage of Drive》, 갤러리 아트시간, 서울
2008	《Hours of Malte》, 로베르네집, 서울
<b>주요 단체전</b>	
2025	《Our Shelter》, LDK DT(구대사관저), 서울 《Take the Flower Seriously》, 333 gallery, 서울
2024	《미적감각》,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3	《1인 가구》, 오산시립미술관, 경기도
2022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콤플렉스 소사이어티: 불완전한 아름다움》, 소다미술관, 경기도 《Young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2019	《멀티 액세스 4913 (2018 SeMA 신소장품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8	《두 동반자의 비밀》, SeMA창고, 서울 《유목종후군: 어둠이 낮보다 먼저 오듯》, 엘리펀트 스페이스, 서울 《ART+WORK》, 화이트블럭 아트센터, 서울 《난지 아트쇼 II: 믿음을 구하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 전시실, 서울
2017	《끝없는 밤》, 대청호 미술관, 청주
2016	《비밀의 화원》, 서울미술관, 서울 《제 4회 아마도 매뉴얼날레 목하진행중》,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5	《읽어주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인천 세계 책의 수도 미술 특별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4	《Gate Opener》, Beijing Commune, 북경, 중국 《ART NOVA 청년예술100》, SZ 아트센터, 북경, 중국
2013	《대구 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From I to I》, EXCO, 대구 《구름사이 Between The Clouds》, 신미술관, 청주 《Pubilc Art New Hero: In The Cube》, 삼성블루스퀘어 NEMO, 서울
2011	《Best of Best 동방의 요괴들 선정작가전》, 상상마당, 서울

<b>수상 및 선정</b>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 인천문화재단
2022	제5회 인카네이션 예술상 선정,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2019	제3회 H-EAA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선정작가상, 호반문화재단
2018	제8회 SDU 미술상 우수작가상, 서울디지털대학교
2016	제2회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박람회 우수상, 서울예술재단
2013	월간 퍼블릭아트 대상 선정작가상, 퍼블릭아트 월간 아트인컬처 신작 작가 발굴 육성 프로그램 동방의 요괴들 선정, 아트인컬처 제1회 영아티스트 콘테스트 최우수상, (주)코오롱 커스텀벨로우
<b>프로젝트 및 프로그램</b>	
2017	KEB 하나은행 랜드마크 아트 프로젝트, SPACE 1, 서울
<b>레지던시</b>	
202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스튜디오 지원, 인천
2024	토지문화재단 예술인 창작실, 강원도
2020	토지문화재단 예술인 창작실, 강원도
2019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2018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 이윤정 LEE Yoonjung

<b>학력</b>	
2013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2000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
<b>개인전</b>	
2025	《n646 초대 개인전》, n646, 서울 《석관고등학교 초대 개인전》, 석관고등학교, 서울 《The Gallery 초대 개인전》, 더갤러리, 안산
2024	《우에다갤러리 x ET 초대 개인전》, gallery ueda-ginja, Tokyo 《이정갤러리 초대 개인전》, 서울 《소노시즈 아트갤러리 x 유경서원 청담 초대 개인전》, 서울
2023	《a.single.piece gallery 개관기념 초대 개인전》, a.single.gallery, Sydney 《갤러리 다함 초대 개인전》, 서울 《이토프로젝트 초대 개인전》, 서울 《pfs 갤러리 초대 개인전》, 피그먼트플래그십 스페이스, 서울 《‘마음이 날다’ 초대 개인전》, 현대신촌점, 서울 《MAMON ARTFLEX》, 롯데 강남점, 서울
2022	《현대백화점 x 갤러리아이엠 초대 개인전》,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 《SMT ChinaRoom Mondrian x Openwall 초대 개인전》, 몬드리안호텔 차이나룸, 서울 《[윽음]청담 x 퍼블릭갤러리 초대 개인전》, 윽음 청담, 서울
2021	《하남문화재단<작은미술관> 공모 선정 개인전》, 스타필드미술관, 하남 《안산문화재단 전시공모 선정 개인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Urban Community 초대 개인전》, Urban Community, 안산
2020	《Museum Holiday 초대 개인전》, Museum Holiday, 강릉 《GSE타워 The Street Gallery 초대 개인전》, GSE타워, 서울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 초대 개인전》, Milano
2014	《‘마음이 날다 3’ 초대 개인전》, 구울담갤러리, 인천
2013	《‘마음이 날다 2’ 초대 개인전》, 버레별씨, 서울
2012	《‘근원적 생명과 예술표현의 간극’ 초대 개인전》, 문화예술의전당, 안산
2010	《석사학위 청구전》, JH갤러리, 서울
<b>주요 단체전</b>	
2025	《MIOKA x CAIYUN 기획 ‘韓月’ 단체전》, mioka gallery, Taiwan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WEST 팝업전시》,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이윤정 x 흑미 2인전》, 병원안갤러리, 인천 《orange gallery 단체전》, orange gallery, Shanghai 《A~RTTAICHUNG ARTFAIR》, Taiwan 《AART SHANGHAI ARTFAIR》, orange gallery, Shanghai 《orange gallery 2인전》, orange gallery, Shanghai 《유나이티드 기획전》,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아트문갤러리 3인 기획전》, 아트문갤러리, 서울 《ART TAINAN 2025》, Taiwan 《GINZA6 TSUTAYA x 2025 OIL ART MARKET x GALLERY UEDA》, ginja, Tokyo

2024	《별들이 가장 낮게 뜨는 시간: When stars hang low_4인전》, 갤러리 헤세드, 서울 《The Culture Diary_M ContemporaryBKK》, Emsphere, Bangkok Thailand 《SHAF 2024》, 성수스텔라, 서울 《우리들의 가을동화전》, LG전자, 창원 《M-ContemporaryBKK》, Emsphere, Bangkok Thailand 《ART TAICHUNG 2024》, Taiwan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자연이 머무는 곳’》, 공간미학, 평택 《THE MASON》, 코엑스, 서울 《이윤정 강선미 2인 초대전》, 병원안갤러리, 인천 《부산국제블루아트페어 x 홈테이블데코》, 백스코, 부산 《ART TAINAN 2024》, Taiwan 《artnedition x 인서리공원》, 광양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전》, 안산 《WAE 2024, 코엑스》, 서울 《FRONTDOOR 0401》, Taiwan 《임승현 x 이윤정 초대 2인전》, 갤러리 빛, 서울 《M-contemporary BKK》, Emsphere, Bangkok Thailand
2023	《갤러리 엘르 기획전》, 서울 《ART FORMOSA 2023》, Taiwan 《‘그 곳에 가면’ 아트보다 갤러리 기획전》, 서울 《BANK ARTFAIR》, SETEC, 서울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전문가과정 교수 학생 참여전》, 생활문화창작소, 화성 《플리옥션 x 삼성물산 아트갤러리》,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ART TAICHUNG 2023》, Taiwan 《단원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단원미술관, 안산 《ICT SPRING 2023》, Luxembourg 《케이옥션 프리미엄 아트부문 프리뷰전시》, K옥션 본사, 서울 《ART TAIWAN 2023》, Taiwan
2022	《ART 99 FESTA》,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THE COLLECTION’ 케이옥션 x 더현대》, 더현대, 서울 《브리즈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케이옥션 프리미엄 아트부문 프리뷰전시》, 신사동, 서울 《수원대학교 40주년 기념 기획전》, 고운미술관, 화성 《국제호텔아트페어》, 인터불고호텔, 대구 《정선 정암사 ‘자연과 사람의 기억’ 순회전》, 도화아트,서울/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샘터,정선/강원랜드/정선 《아트페스타 서울 아트페어》, SETEC, 서울 《‘2022 플리그라운드’ 플리옥션》, 흥대상상마당, 서울 《아시아호텔아트페어》, 하얏트호텔, 부산 《connecting memories》,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하남프린지아트페어》, 스타필드, 하남 《‘Begin Agian’전》, 갤러리더그레이스, 파주 《Neo space 기획전》, 정수아트센터, 서울 《블루아트페어》, 웨스턴조선, 부산 《플리옥션 ‘CLASSIC, CLASSY ART’》

2021	《제7회 대전국제아트쇼》, 골든하이컨벤션센터, 대전 《New Vibes Rising Artists》, 롯데갤러리, 인천 《K옥션 프리미엄 아트부문 프리뷰전시》, K옥션, 서울 《bac 부여아트페어》, 부여 《경기문화재단-경기도교육청 기획전》,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마롱컴퍼니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마롱컴퍼니, 서울 《‘Spotlight’ K옥션 프리미엄 아트섹션 기획전》, K옥션, 서울 《라폼므 현대 미술관 전국 공모 선정 기획전》, 라폼므 현대미술관, 청주 《‘멀리, 혹은 가까이’ 초대전 2인전》, Museum Holiday, 강릉 2020 《K옥션 프리미엄 아트부문 프리뷰전시》, K옥션, 서울 《‘용기는 파도를 넘어’ 안산문화재단 예술지원전시》, 단원미술관, 안산 《우이-신설 문화철도 전시기획공모 당선》, 우이신설문화철도, 서울 2019 《서정아트센터 작가공모 당선 우수상 작가 2인전》, 서정아트센터, 서울 《네이버프로젝트 꽃 온스테이지 X》, S factory#d, 서울 《브리즈아트페어 with 노들섬 공모 당선》, 에이컴퍼니, 서울 《갤러리 아우름 개관전 par.2 ‘Come in_’》, 갤러리아우름, 광명 2015 《KOREA WUNDERKAMMER》, ARTESPRESSIONE, Milano 《ESTETICA》, CIRCOLO PARTITO DEMOCRITICO, Milano 외 다수
<b>수상 및 선정</b>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2020	단원미술관 창작지원사업 선정 네이버 창작자 멤버십 대상자 선정
2018	아트경기 & 네이버 ‘우리집 그림 한 점’ 공모 당선
<b>프로젝트 및 프로그램</b>	
2025	TSUTAYA BOOKS x 2025 OIL ART MARKET x GALLERY UEDA
2024	아트앤에디션 공익 프로젝트 [Small Edition, Big Hug 15 Edition]
2021	264 청포도와인 x 이윤정 콜라보
<b>작품소장</b>	
	경기도미술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안산시청, MORA DISPLAY 사육, 안산 자이센타프라자 소장, 개인소장 다수
<b>기타</b>	
2025	하남미술협회 초청 강연 SBS 드라마 ‘보물섬’ 협찬 2025년 개정판 미술교과서 작품 수록
2024	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자연이 머무는 곳’ 초청 강연 2025년 개정판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작품 수록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협찬
2023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출강

	롯데백화점 강남점 (MVG) 아트살롱
2022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 협찬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3’ 협찬
2021	박기웅의 컬처라이브 라폼므 현대미술관 아티스트 토크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 매거진 <스타일 H> 7월호 작품 소개
2020	tvN 드라마 ‘스타트업’ 협찬
2019	네이버 프로젝트 꽃 ‘온스테이지 X’ 아티스트 토크 IXdesign 8월호 표지 네이버 그라폴리오 창작지원 프로젝트 회화부문 심사위원

# 이윤빈 LEE Yunbin

<b>학력</b>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석사 졸업
2017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 졸업
<b>개인전</b>	
2024	《보이지 않는 식물》, 광명시작, 경기 광명 《푸르스름한 하늘과 연녹색의 식물들 아래, 보이지 않는 땅》,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3	《우리는 밀림 속에 있었다》, 장생포고래로131 갤러리, 울산 《검은 식물의 방》,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청주 《올해의 작가_장소의 흔적》,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잔물결의 순간들》, 갤러리 반디트라소, 서울
2022	《검은 점은 흔들려도 검은 점》, 장생포고래로131 갤러리, 울산 《그 곳의 틈》, 그라운드 시소 갤러리 아잇, 서울 《수집되고 기록되는》, 갤러리 반디트라소, 서울
2020	《공간》, 갤러리 반디트라소, 서울
2019	《그 때 그 자리에 선》, 갤러리탐 이태원 탐앤탐스 블랙, 서울
2018	《공간인식:보다》,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 주요 단체전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구슬나무》, 김홍도미술관, 경기 안산 《더 드로잉:나에게 드로잉이란》, 소마미술관, 서울 《태화강은 흐른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흔적과 발견》, 은암미술관, 광주 《선택과 시선》, 덴아트갤러리, 인천 《점등하는 초점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4	《유연한 틈; 시선의 그림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전입신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3	《광주화루 선정작가전》, 광주은행 본점, 광주 《부기우기 미술관_대면대면2023》,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To, to》, 아트그라운드 HQ / 북구예술창작소, 울산
2022	《작은미술관 해파랑길 프로젝트 동해와 포구와 예술의 만남》, 장생포고래로131 작은미술관, 울산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교감의 형태_공간x교감》, 이중섭미술관, 제주 《제6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경기 양주 《장생포고래로131 입주작가 프리뷰 지금, 여기》, 장생포고래로 131 갤러리, 울산
2021	《제주 수집가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 《작가미술장터 셋보름미술시장_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전시》, 제주도립미술관 시민청갤러리, 제주 《작가미술장터 셋보름미술시장_삼다도는 그림도》,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제주 《내일의 작가전》,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서울시 신진미술인 지원사업_모두에게 멋진 날들》, 서울시청, 서울 《영은지기 기억을 잇다》,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19	《YnY Project artist project 4기 3rd》,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제4회 뉴드로잉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_경기 양주 《COSO청년작가 공모전》, 갤러리 코소, 서울
2018	《Young Creative Korea 2018》,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6	《그 점을 따라가시오》, 송파구청 예송미술관, 서울 《Mayfly》, space M, 서울
2015	《광복 70주년기념 특별기획전 201_5감도 대학미술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 수상 및 선정

2024	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광명.시.데뷔전>, 광명문화재단, 경기 광명
2023	<제7회 광주화루>, 광주은행, 전남 광주
2021	<내일의 작가>,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9	<드로잉센터 아카이빙 작가 14기>, 소마미술관, 서울

## 레지던시

2024-202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8기, 충북 청주
2022-2023	고래문화재단 장생포고래로 131 창작스튜디오 7기, 8기, 경남 울산
2021-2022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2기, 제주 서귀포
2020	인카네이션 창작스튜디오 2기, 강원도 고성

# 전효경 JEON Hyokyoung

<b>학력</b>	
202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2022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b>개인전</b>	
2025	《첫내와 파람》, 소금나루 작은미술관, 울산
2024	《개우는 방》, 겸재 정선 미술관, 서울

## 주요 단체전

2025	《선선한 소란》,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갤러리, 담양 《도시기억보고서》,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 울산 《NOWHERE》,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Young&Young Artist Project 6th》,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24	《맥시와 미니》, 유명공간, 서울 《어느 서귀로운 날에》, 기당미술관, 제주도 《내 주머니 속의 죽음》,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 서울
2023	《신진표류기》, 북서울 꿈의 숲 상상특목미술관, 서울 《3인칭 지구》, 노들 갤러리, 서울 《겸재 내일의 작가상전》, 겸재 정선 미술관, 서울 《에버레버 아트 프로젝트》, 읍스큐라, 서울

## 수상 및 선정

2025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김홍도미술관
2023	천만장학회 제1회 천만아트포영 人, 월간 퍼블릭 아트
2023	제14회 겸재 정선 미술관 내일의 작가상 대상

## 레지던시

2025	제12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레지던시 입주작가
2024	제15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작가

## 작품소장

겸재정선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경기문화재단, 영은미술관

# 정현정 JUNG Hyungjung

<b>학력</b>	
202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과 박사과정 졸업
200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과 석사과정 졸업
2000	한남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졸업

<b>개인전</b>	
2025	《illuminating existence-조명하는 존재 anomaly layer-변칙적 층위》, 미앤갤러리, 서울 《illuminating existence- anomaly layer/Expansion of the anomaly layer》,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24	《illuminating existence- anomaly layer/Expansion of the anomaly layer Gallery KNOT》 갤러리 너트 ‘너트프라이즈 선정 작가’ 개인전, 갤러리 너트, 서울 《illuminating existence- anomaly layer/Between moderation and vitality of anomaly layer》, 시카미술관, 김포 《illuminating existence- Balance in the tension of anomaly layer》,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3	《illuminating existence- 조명하는 존재 -변칙적 층위 anomaly layer》,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illuminating existence- 변칙적 층위: 집적의 균형》,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2	《illuminating existence- 변칙적 층위》,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illuminating existence- 변칙적 층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9	《illuminating existence-변칙적 층위 anomalous layer》,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with art fair 위드 아트페어 illuminating existence 개인전》,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
2015	《illuminating existence- 러시아 사할린 아트페스티벌 초대부스 개인전》,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주립 미술관, 러시아
2013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대개인전》, 한국문화원, 러시아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대개인전》, 한국문화원, 헝가리 《미국 라스베이거스 Harrah's 호텔 초대개인전》, 미국 《주 미국 LA한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초대개인전》, 한국문화원, 미국
2010	《illuminating existence 개인전》,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2009	《illuminating existence 개인전》,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2008	《illuminating existence -'빛', 개인전》, 우림 갤러리, 서울

<b>주요 단체전</b>	
2025	《한국 현대 미술 독일 베를린 아트페스티벌》, Q 갤러리, 베를린 《종로예술원 초대작가전》,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스페셜관, 서울 《창조미술협회 신년초대전》, 갤러리 EOS, 인천
2024	《인천 아트쇼》, 송도컨벤시아, 미앤갤러리, 인천 《크리스마스티벌 우수작가전》,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스페셜관, 서울 《CALIFORNIA DREAM AND SEOUL DREAM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 기금 마련 전시회》, AJL 아트 갤러리, 미국 《빛과 소금 전》, 갤러리 프리즘, 계룡
2022	《서울아트쇼》, 코엑스, 갤러리 피랑, 서울

2022	《인천 아시아 아트쇼》, 송도컨벤시아, 우현문 갤러리, 인천 《한남대 패션 의류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시》, 중앙박물관 미술전시실, 대전
2021	《인천 아시아 아트쇼》, 송도컨벤시아, 인천
2020	《Seoul Hotel Art Fair》, 이비스 스타일 엠버서더 호텔, 서울 《제 16회 강원아트페어》,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2019	《길 위에서 On the Road》, 나비갤러리, 대전 《제15회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작품전》, 학생회관 종합전시실, 춘천
2018	《제14회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작품전》, 학생회관 종합전시실, 춘천 《同行展 동행전》, 대전예술가의 집, 대전
2017	《제13회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작품전》, 학생회관 종합전시실, 춘천 《Art mora 기획전시 갤러리 아트모라》, 미국 뉴저지 《모락모락 기획전시》, 갤러리 일호, 서울
2016	《서울 아트쇼 초대전시》, 코엑스, 서울 《제 12회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작품전》, 학생회관 종합전시실, 춘천 《상하이 아트페어》, 줌갤러리, 상하이 《한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교수전》, 중앙박물관 미술전시실, 대전 《오월의 선물전》, 알뮤트 갤러리, 서울 《gift 선물전》, 리각 미술관, 천안
2015	《대구 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홍콩어포더블 아트페어》, 홍콩 컨벤션센터, 경주 예술의 전당 라우갤러리, 홍콩 《노스텔지아 trip 전시》, 예술의 전당, 경주 《서울 오픈 아트페어(SOAF)초대 전시》, 줌갤러리, 코엑스, 서울 《월드 아트 두바이》,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 줌갤러리, 두바이 《한남대학교 교수 전시회》, 중앙전시실, 대전 《한-중 현대 미술 교류전》, 대전
2014	《SEOUL ART SHOW 초대 전시》, 줌갤러리, COEX, 서울 《BANK ART FAIR》, Pan Pacific Hotel, 줌갤러리, 싱가포르
2013	《말레이시아 국제아트페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줌갤러리, 말레이시아 《파리 루브르 박물관 까루젤관 초대그룹전》, 루브르 박물관, 파리 《해외교류 작가회》,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2	《한국—터키 현대작가 교류전》, 터키 《LA 한국 현대작가 교류전》, 미국 《한국-호주 작가교류전》, 인천
2011	《한국-중국 현대작가 교류전》, 대전
2010	《스타&블루칩 작가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아트 페어》, 힐튼 호텔, 줌갤러리, 서울 《국제 인천 아트 페어 2010》외 다수

<b>수상 및 선정</b>	
2025	한국 현대 미술 독일 베를린 아트페스티벌 우수상
2015	러시아 사할린 아트페스티벌 최우수작가상
2013	미국 순회전 우수작가상 2013-주 미국 LA한국총영사관,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
2011	대한예술진흥회- 우수지도교육자상 수상

**작품소장**  
메르세데스 벤츠, 법무법인 리더스, (주)한성운수,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등

# 현덕식 HYEON Deoksik

<b>학력</b>	
2009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200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졸업

<b>개인전</b>	
2024	《녹아 흐르는 섬_유시도》, 세지화랑, 서울
2023	《유시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2022	《뚜벅이》, 스튜디오126, 제주
2021	《뚜벅이》, 월정 아트센터, 제주 《뚜벅이》, 예술공간 파도, 제주
2019	《뚜벅이》, 델문도 갤러리, 제주 《뚜벅이》, space D, 서울
2018	《뚜벅이》, 초계미술관, 제주
2017	《유시도》, 초계미술관, 제주
2016	《유시도》, 캔싱턴 제주갤러리, 제주
2014	《유시도》,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2	《유시도》, 제주문예회관, 제주
2011	《뽕뽕이》, gallery연, 제주
2008	《?를 보다》, gallery모양, 제주 《?를 보다》, gallery악어, 서울
2007	《어멍》, galleryHARU,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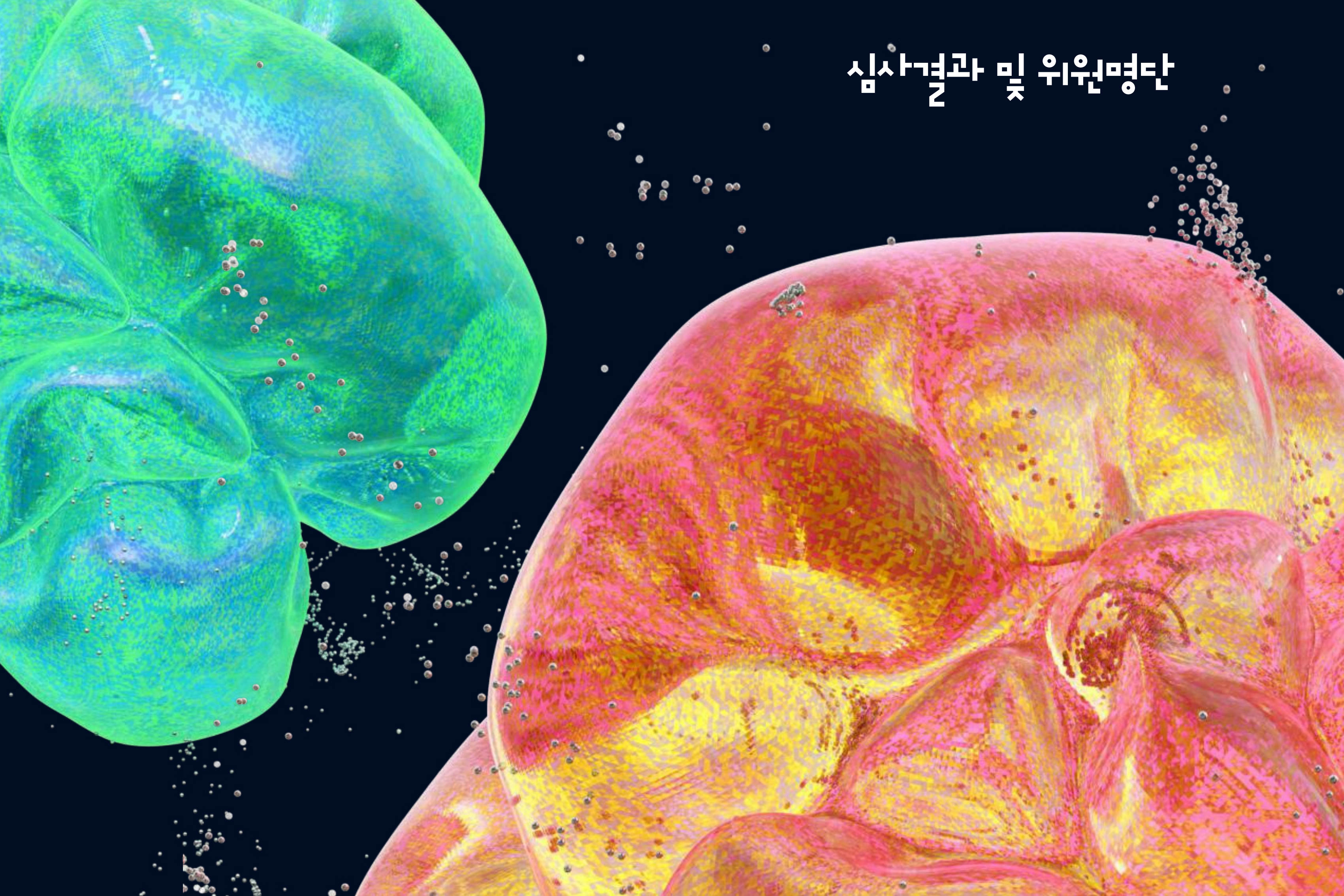
<b>주요 단체전</b>	
2024	《제주 한국화의 풍경 사인화담》,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23	《제주미술제》,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2022	《Art festa in JEJU》, 산지천갤러리, 제주
2021	《30주년 제주한국화협회전》, 문예회관, 제주 《연(緣)전》, 이룸갤러리, 제주 《Art festa in JEJU》, 산지천갤러리, 제주 《B-101》, 아트인명도암, 제주
2020	《Art festa in JEJU》, 산지천갤러리, 제주 《자화상: 나를 찾다》, 이중섭미술관, 제주
2019	《경계의 감각》, 예술공간 이아, 제주 《99+1》,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71주년 4·3초대전》,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 이중섭미술관, 제주
2018	《길에서 만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2015	《제주의 표정전》,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 《섬의 변주곡》,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4	《하나의 정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3	《배발, 공간을 채우다》, 문화공간 시선&심, 제주
2010	《제주예술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섬에 사는 호랑이》, 이중섭미술관, 제주

<b>수상 및 선정</b>	
2020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선정작가상
2018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선정작가상
2017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선정작가상
201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b>레지던시</b>	
2022-2023	장흥 가나아틀리에
2009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파르나스호텔, 이중섭미술관, 개인소장 외 다수

# 심사결과 및 위원명단



**심사결과**  
총 11명 선정

구분	인원	수상자명	상금	
계	11인			
단원미술대상	1인	김준기	3,000만원 200만원	매입상 전시지원금
선정작가	10인	김민호,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엄지희,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현덕식	각 200만원	전시지원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노재순 한국미술협회 고문

**운영위원**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 대표  
오시수 (사)한국수채화협회 이사장  
주형근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대표  
허강 중부대학교 교수  
박향미 안산시 문화예술과장  
하진용 김홍도미술관장

**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홍재연	前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강구철	전업작가
	구분호	前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박경범	작가, 한남대학교 교수
	박도춘	전업작가
심사위원	박동진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희자	한국미술협회 인천지회 고문
	안대현	(사)평택미술협회장
	조상렬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홍지희	건국대학교 교수

**2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박용인	(사)한국미술협회 고문
	권치규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조각가
심사위원	신제남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이길우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화가
	허나영	미술평론가

**3차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고문
	고충환	미술평론가
	김성용	한남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이응우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 회원
	이종송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1차 심사평**

439명의 작가들이 지원한 2025년도 단원미술제의 심사가 10명의 심사위원들이 10시간의 심사를 거쳐 22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보통의 미술대전이 400여명의 작품이 출품 되어도 적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응모하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원미술제가 각 방면으로 신경을 집중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한 점의 작품의 출품일 경우 완성도가 높은 한 점을 선택하여 출품하면 되지만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그간 자신이 해오던 작품이 선정과 변화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어 출품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중에는 변화 과정을 보여 주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사례, 또는 작품의 이론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작가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현대 미술은 본인 작품의 출발지나 기술적인 바탕도 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창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와 자생이라고 하는 생존의 요소 또한 같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작가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각과 가치관 그리고 다른 작가와의 차별성, 자신의 개성의 성립은, 현대에 사는 우리 작가들이 관심있게 살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 길은 내가 헤쳐간다는 각오와 함께 다른 일을 하는 직업인보다 더욱 끈질기게 작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여 주신 작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력과 인내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

**2차 심사평**

2025년 제26회 단원미술제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22명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미술계에서 분야별로 훌륭한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작가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작품설명 및 작업 과정을 들은 뒤, 질의응답 순서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후보 작가는 모두 22명이었고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주제와 재료,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표현된 수준 있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완숙보다는 조금 미숙할지언정 진지하게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독자적으로 창출해내려는 의지와 열정이 돋보였으며, 단순히 시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작업 과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소재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표현해 보려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념과 시도는 매우 바람직했으며 우리 미술계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출품작들이 좀 더 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작품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열한 분의 작품들은 모두 수준 있는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선정된 열한 분 모두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 3차 심사평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단원미술제가 이제 어엿한 중견미술제로서의 성가를 높이면서 굳건한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단원은 조선시대의 풍속화가로 유명한 김홍도 선생의 호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풍속화가의 호를 따서 제정한 단원미술제는 그 밑바탕에 한국화의 전통성 확보와 단원 김홍도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깔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26회 단원미술제는 총 접수 인원 439명 중 1차에서 22명이 선정되고, 2차에서 11명이 선정돼 3차 심사가 5분의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회화(서양화, 한국화), 사진, 판화, 복합, 입체 등 미술의 다양한 경향이 망라되었으나, 본심(3차)에 올라온 11명의 작가들 작품은 서양화, 한국화, 사진 등 전반적으로 평면 위주의 작업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본심 심사에 오른 김민호, 김준기, 김형욱, 김형진, 선민정, 염지희, 현덕식, 이윤빈, 이윤정, 전효경, 정현정 등 11인의 작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작업의 이론적, 논리적 기반이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1명의 대상 선정이라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준비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고 작품을 직접 대면, 개별심사를 진행하여 점수를 집계, 3배수로 선정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대상은 객관적인 점수 합산의 결과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이번 출품작들을 둘러보면서 단원미술제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며, 단원미술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26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展 《구슬나무》

주최  
안산시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

발행인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김태훈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한은현 김홍도미술관장

공모사업  
원유준, 김소현

전시기획  
배수진, 김소현

운영지원  
김장은, 김지안

시설지원  
권선지, 김인수, 최순덕

도슨트  
황세숙

안내  
강성애, 권옥순, 김경남, 김하늘,  
이경희, 이정란, 허종숙

평론  
윤진섭 미술평론가

전시 디자인  
파이카

연출물 시공  
(주)이엘아트

전시사진  
스튜디오 오디티

©안산문화재단, 2025

이 책에 수록된 작품도판 및 텍스트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저자 및 (재)안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홍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422  
T. 031-481-0505 F. 031-413-5566  
W. danwon.ansanart.com

